

8일 Market Index			
코스피	7484.41	코스닥	911.39
	(-676.18)		(-91.05)
금리 (연고채 3년)	3.940	환율 (원/달러)	1533.75
	(+0.058)		(-5.35)

metro 경제



“내달 부동산稅 정비… 반도체 초과세수, 장기투자세에 써야”

李 대통령, 취임 1주년 간담회
6·3선거 패배에도 부동산 기조 일관
보유세 부담 확대 등 세계개편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투자 수요는 누르고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것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일관된다는 의미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언급하며 세계 개편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반도체 특수로 인한 초과세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선잠재성장 회복을 위한 '장기 투자'에 써야 한다고도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수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방향 질문에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꺾어먹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면서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법 개정안 등을 마련한다. 올해 중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공급은 신속

·재건축·재개발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는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상수였다고 본다”며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는 상승 압력을 잘 나름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초부터 직접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이,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줬다고 평가한 셈이다. 여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6면에 계속> /서재진 기자 syj@

코스피 8% 폭락 ‘블랙 먼데이’ 공습

삼성전자(1위)부터 기아(10위)까지, 8일 국내 증시는 시가총액 상위 10대 종목(우선주 제외)이 전부 파란색(주가 하락)으로 물들며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를 맞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와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로 등 반도체주 급락 여파가 아시아 증시를 무너뜨렸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8.29% 떨어진 7484.41로, 코스닥 지수는 9.08% 급락한 911.39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 증가가 80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달 22일(7847.71) 이후 9거래일 만이다. 이날 하루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은 550조원에 달한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서킷브레이크도 발동했다. 역대로는 9번째 발동이다. 올해 들어 11번째 때도 사이드카도 발동했다. 일본 닛케이평균(-3.85%)를 비롯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대만 가권지수 등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했지만 특히 한국 증시의 낙폭이 컸다. <관련기사 3면>

총수들과 연쇄회담… 젠슨 황, 韓서 ‘AI 제국’ 판 짠다

황 CEO, 3박4일 일정 마무리
AI와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주도권 확보 속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양재사옥에서 4족 보행로봇 스폿(Spot)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모베드(MobED)에 사인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박4일 방한 기간 동안 삼성·LG·현대차·SK·두산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남을 갖고 ‘AI 동맹’을 본격화했다.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전력 인프라, 자율주행 등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피지컬 AI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을 찾은 황 CEO는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미래 AI 방향성을 논의했다.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한국을 미래 핵심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관련기사 4·9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만난 황 CEO는 “우리는 매년 SK하이닉스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조달하고 구매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앞으로 상당히 커질 것”이라면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메모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 네트워크는 국가 AI 인프라로 진화하며 사람과 기업,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통신망이 AI 클라우드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SK텔레콤은 엔비디아 DSX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기업과

산업계에 에이전트 AI, 엔터프라이즈 AI, 피지컬 AI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중심으로 진행되던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그룹 차원의 AI 팩토리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차세대 AI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는 등 장기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최 회장은 “그동안의 협력은 주로 메모리 분야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SK그룹

차원으로 협력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엔비디아와 함께 미래 AI 팩토리를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로 이동한 황 CEO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피지컬 AI와 AI 인프라(AIDC), 모빌리티 분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양사는 로보틱스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차세대 AI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AI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엔비디아의 풀스택(Full-stack) 엔드투엔드(End-to-End) AI 플랫폼과 가전, 로

봇, 모빌리티 부품, 스마트 공간, AI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한 LG그룹의 역량을 결합해 AI 모델 개발부터 로봇 학습·운영, 디지털 트윈 구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차세대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황 CEO는 이날 오후 현대차그룹 양재사옥을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남을 갖고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 급락에
美 금리인상 우려 등 증시 덮쳐
9거래일 만에 증가 8000 하회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종목은 모두 하락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보다 10.18% 하락한 29만5500원에 마감하며 30만원선이 붕괴됐다. SK하이닉스 주가도 약 7.68% 떨어진 191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시 ‘블랙 먼데이’는 지난주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과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주요 반도체 종목 30개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는 10.26% 급락하며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바 있다. 코스피는 SOX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또 시장 예상을 밑도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개별 기업의 부진을 넘어 빅테크의 AI 투자 속도조절론으로 번졌다. 다만,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줄이면서 4.1원 내린 달러당 1535.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리도 경계 수위를 훌쩍 뛰어넘으며 ‘발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보다 5.8bp(1bp=0.01%포인트) 상승한 연 3.940%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11월 2일(연 3.979%)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메트로 한줄뉴스



- ▲한동훈 “李, 공소취소하고 싶다는 뜻 분명히 해…공소취소하면 탄핵 나설 것” /사진 뉴시스
- ▲김종인 “정원오 패인은 李 대통령 ‘부동산’ 관련 강력 발언 영향”

- ▲정부, ‘주민자치회’ 위원 거주요건 삭제…외국인 참여 허용
- ▲“선거 승리하면 다시 오겠다” 김상욱, 당선증 들고 국립5·18민주묘지 찾아

- ▲양대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명문화 촉구
- ▲輿 전대 준비논의 착수…‘서울 패배’ 정청래 책 임론 속 당권 경쟁 서막



한성숙 “민생경제 비상상황 타개 총력… AI 대전환 속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AI분야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강조
다주택 매각 여부 질문에는 말 아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당면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교육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한 현시점을 국정 전반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봤다. 그는 “2년 차에는 지난 1년의 국정 성과를 이어받아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욱 빠르게 넓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대전환과 혁신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AI로 가속화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그 과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전환도 이루어가야 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협치와 소통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 각 계각층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성실히 소통하고 각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 명의의 다주택 매각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련 부분은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한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택을 지난 5월 처분했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매 계약을 통해 소유 20년 만에 29억5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비(非) 정치인 출신인 점과 관련해서는 “모든 총리가 시대에 맞춰서 다른 역할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한다”며 “저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총리직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 김애란 소설가의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

를 인용하며 “살면서 어떤 긴장은 이겨내야만 하고, 어떤 연기는 꼭 끝까지 마친 뒤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걸, 그것은 세상의 인정이나 사랑과 상관없는 가식이나 예의와도 무관한 말 그대로 실존의 영역임을 알았다”는 문장이 기억났다”고 했다.

이어 코르티즈의 곡 ‘레드레드’를 언급하며 “도가니 사리길 레드레드, 신호등 바뀌었어 그린그린 넘어가 울타리 그린그린’이란 가사가 외달았다”면서 “몸사리지 않고,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 것에 맞춰서 과감하게 울타리 넘을 수 있는 건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인사청문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참여정부 시절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20년 만에 탄생하는 역대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KDI “한국경제, 반도체 중심 완만한 개선세”

경제전망 6월호 긍정적 인식 유지
“중동전쟁 지속… 하방위험 가능성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경제에 하방 리스크가 드리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아시아발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KDI는 8일 펴낸 ‘경제전망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5월호에서는 경기 판단에 대한 표현을 ‘경기 하방위험 확대’에서 ‘경기 회복세’로 전환한 데 이어 이달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동전쟁으로 원유 수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 하방위험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유가 지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확대된 가운데 생산 비용도 상승했다”며 “이와 함께, 원유 공급 차질로 석유제품 생산과 석유제품 수출물량이 감

소하는 등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전(全)산업생산은 전년동월에 비해 2.4% 늘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지속했다.

건설업생산(-5.5%)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설비투자(8.1%)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1.6%)는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3개월 이동평균(3.6%)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월 들어서는 소비자심리지수(99.2→106.1)가 크게 반등했다.

수출은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5월 수출은 전년동월에 비해 53.2%, 일평균 수출은 60.7% 증가했다. 반도체(182.5%)와 컴퓨터(309.8%)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중동사태의 장기화로 통상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석유 제품은 원유 수급 차질로 일평균 수출량

이 20.1% 줄었다.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조정됐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20만6000명에서 4월 7만4000명으로 축소됐다. 서비스업(33만2000명→21만4000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20대 고용률이 1.8%p 하락하는 등 청년층 취업난도 심화됐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큰 폭으로 뛰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이 24.2% 급등하면서 상품 물가가 3.5% 올랐다.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상승률도 2.2%에서 2.5%로 높아졌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금리와 환율 등이 상승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월 말 3.60%에서 5월 말 3.73%으로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4월 말 1483.3원에서 5월 말 1507.9원으로 뛰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시진핑, 북한 국민 방문… 경제세계화 제안

양국 비핵화 문제 두고 미묘한 긴장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이후 약 7년 만에 북한을 국민 방문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 지형의 재편에 나섰다.

시 주석은 8일 정오께 부인 평리위안 여사와 함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방문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민 만찬과 공연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단순한 할렙을 넘어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다극화 국제 질서 재편에 북한을 핵심 축으로 끌어들이며,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 구도를 한층 공고히 다지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번 방문에서 시 주석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 포용적인 경제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핵심 의제인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는 양국 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8일 북한 평양의 한 건물 외벽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환영하는 중국 오성홍기와 북한 인공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앞서 북한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방북 직전인 우리농 농축시설과 미사일 공장을 잇달아 시찰했으며, 김여정 당 부부장은 미·중 정상의 북한 비핵화 합의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말은 빼놓은 채, 각자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면서 중국이 ‘비핵화’라는 말 대신 ‘사회주의 연대’를 내세워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적대적 행보를 묵인하고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규춘 기자 ch9720@



metro

과기부, 첨단 GPU 사업 ‘네이버·삼성SDS·엘리스그룹’ 선정

‘AI 고속도로’ 구축 본격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 고속도로’ 구축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올해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현존 최고 성능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국내 산·학·연의 초거대 AI 모델 개발 등에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조8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첨단 GPU 확보·구축·운영지원 사업’ 참여 기업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삼성SDS, 엘리스그룹 등 3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자 공모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개 클라우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다. 과기정통부

는 서류 적합성 검토와 사업 역량 평가를 거친 뒤 데이터센터 상면·전기설비·네트워크 보안 등에 대한 현장 실사와 사업비심의 등을 거쳐 최종 3사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CSP) 3사와 협력해 차세대 고성능 GPU 총 9704장을 확보·구축하고 민간·공공의 AI 혁신에 필요한 GPU 자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사와 협력해 확보되는 GPU 물량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초고성능 모델인 ‘베라루빈’ 2016장과 ‘B300’ 7688장이다. 기업별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베라루빈 1008장·B300 3112장 ▲삼성SDS가 베라루빈 1008장·B300 2016장 ▲엘리스그룹이 B300 2560장을 각각 확보·구축한다. 전체 확보 물량 9704장 중 정부 활용분

인 베라루빈 2016장과 B300 4360장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가 AI 프로젝트, 산·학·연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고도화 지원 등에 활용된다. 초거대 AI 모델 학습 등 민관의 대규모 AI 혁신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나머지 B300 3328장은 참여 CSP들이 자체 활용한다. 각 CSP가 클라우드 기반 GPU 서비스를 통해 AI 산업·연구 현장의 부족한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고, 자체 AI 모델·서비스 고도화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CSP는 클라우드 기반 GPU 서비스를 확장할 기반을 마련하고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서비스 역량 및 자체 AI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AI 개발·활용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시스

새만금 투자·AI 가속기 공급 확대 등 논의

» 1면 ‘총수들과 연쇄회담…’서 계속

황 CEO는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분야의 거인이자 전문가로 파트너가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우리는 AI와 현대 모빌리티 전문성을 결합해 로보틱스의 미래를 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황 CEO에게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한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했고 황 CEO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부장(부회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인공지능(AI) 메모리, AI 반도체 공급망 등을 둘러싸고 협력

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CEO는 지난 7일 두산그룹과도 전방위 협력을 약속했다. 두산의 제품과 기술 및 제조역량을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피지컬AI 플랫폼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오랜 기간 축적한 제조 역량을 토대로 에너지, 로보틱스, 첨단소재 분야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AI팩토리 시대를 맞아 우리 사업 분야에 AI를 적용하고 사업기회를 모색하는데 이번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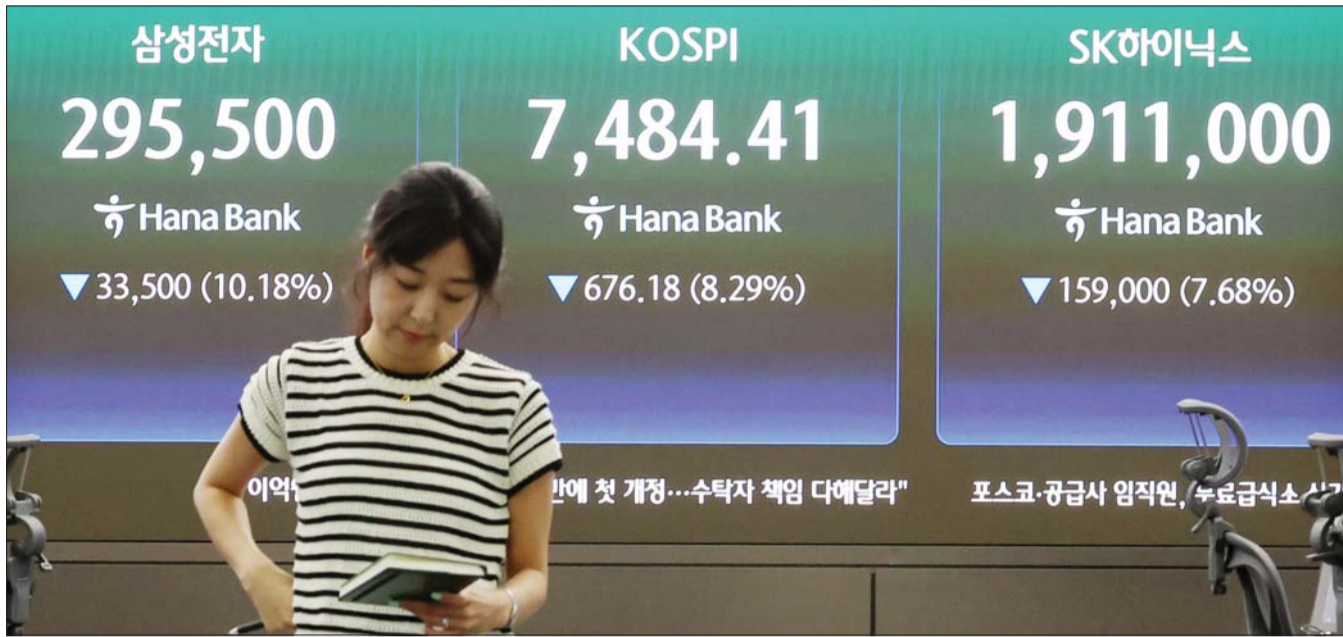
美 반도체 쇼크, 금리·환율 악재... “변동성 뒤 회복 기대”

브로드컴 전망에 AI고점 우려 확산
美 고용 호조로 금리 부담 가중
外人 자금 이탈 압력에 증시 흔들
유가·금리 상승도 투자심리 압박
전문가 “펀더멘털 훼손은 제한적”

미국발 '반도체 쇼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고환율 등 복합 악재가 국내외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특히,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560원 선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자극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기업들의 실제 가치나 실적에 비해 과다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충격에 불과하다는 엇갈린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다.

◆美 반도체 쇼크, 금리·환율 까지

8일 폭락은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에서 연간 AI 반도체 매출 전망치가 높아지지 않으면서, 그동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끌어 온 반도체 호황이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예상을 크게 웃돈 미국의 고용 지표도 찬물을 끼얹었다. 미 노동부가 5일 발표한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7만2000명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8만명)를 크게 웃돌았다. 탄탄한 고용 상황 탓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실상 사라졌다. 오히려 연내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 채권시장에서 글로벌 시중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54%, 30년물 금리는 5.007%까지 오르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4.5%와 5.0%를



코스피가 전 거래일(8160.59)보다 676.18포인트(8.29%) 내린 7484.41에 마감한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가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각각 돌파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보다 5.8bp(1bp=0.01%포인트) 상승한 연 3.94%를 기록했다.

채권시장 불안은 더 어이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상은 성공을 망치려는 시도”라며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반대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메리클은 지난 5일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 전망을 기존보다 늦췄다. 당초 2026년 12월과 2027년 3월로 예상했던 두 차례의 인하 시점을 각각 2027년 6월과 12월로 조정한 것이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중동 지역 리스크가 다시 커지며 금리를 자극하는 유가발 물가 불안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8월물 선물은 5%대 급등해 97달러를 넘어섰으며,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4%대 올라 94달러를 웃돌았다.

외국인 ‘팔자’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한 것 역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는 핵심 원인이다. 6일 새벽 마감한 야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1561.50원까지 치솟으며 1560선마저 뚫었다. 이는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기계적 리밸런싱으로 환율 상승을 주도한 외국인 역송금 수요에 역외 투기적 수요가 더해져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초대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의 기업공개(IPO)가 자금 블랙홀이 될 것이라 걱정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스페이스X·앤티로픽·오픈AI 3개사의 IPO만으로

미국 거래소에 약 4조달러(약 6237조원)의 시가총액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알파벳이 AI 데이터센터 투자 자원 마련을 위해 다음 분기에 850억달러(약 13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설 계획이어서 신규 공급 압력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메타플랫폼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 “펀더멘털 변함없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신중론으로 바뀌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이 포지션 헤지와 과밀 거래 축소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헤지펀드 골드 호스 펀드 매니저인 트는 익스포저(투자 노출액)를 줄이고 파생상품 보호 장치를 추가했다. 영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M&G 인베스트먼트도 투자를 인공지능(AI) 공급망 전반에 걸쳐 다각화하기 위해 메모리 파운드리 보유

비중을 줄였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탄비트 산두 글로벌 수석 파생상품 전략가는 “논쟁은 코스피 스토리가 여전히 매력적인지 여부가 아니라, 수익 일부를 회수하지 않고서 어떻게 투자를 유지하느냐”라고 말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표적인 한국 주식형 펀드인 아이셰어즈MSCI 한국 ETF(티커명 EWY) 옵션 거래는 수요가 상승 익스포저에서 하락 방어로 이동해 투자자들이 점점 더 신중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WY는 지난 5일 미국 시장에서 14% 급락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단기 변동성을 예상하지만, 곧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례적으로 극심한 쏠림현상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코스피 레밸업을 주도해왔던 반도체, IT하드웨어, 가전 등 AI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변동성 확대의 중심에 자리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낙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향후 1~2주간 극심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매도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해 매집하거나 버티기 전략이 유효하다”면서 “6월 후반 2분기 프리어닝시즌 돌입과 함께 코스피 저평가 매력에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언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연준의 정책 기조가 명확해지기 전까지 금리와 환율, 성장주를 중심으로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6월 중·하순부터 2분기 실적 프리뷰가 시작되고, 7월에는 수주·백로그·고대역폭메모리(HBM) 수익성 등 우량 AI 인프라 기업의 실적 가시성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라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원·달러 환율 장중 1550원 돌파... 당국 “쏠림 강력 대응”

15거래일째 1500원대 고공행진
중동 리스크에 동아시아 통화 약세
원화값 2월 말 대비 6.9% 하락
외국인 순매도에 자금이탈 압박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50원을 위협하며 원화의 약세가 심화하고 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영향으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통화 전반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화의 약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외환당국은 최근의 환율이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 대비 과도하게 높게 형성됐다고 진단하는 한편, 과도한 변동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두드러진 ‘원화 약세’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35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 거래일 주간 증가인 1539.1원보다 4.1원 내렸다. 이날 환율은 15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을 넘겼으며, 개장 직후에는 1555.2원까지 상승해 세계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한 것은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통화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엔화값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60원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을 넘기며 ‘초엔저’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4년 이후 최고(엔화값 최저) 수준으로 치솟았고, 2025년 달러당 29대만달러까지 내렸던 달러·대만달러 환율도 달러당 32대만달러까지 상승(대만달러값 하락)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한 동아시아 3국은 차량·반도체 등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에너지의 대부분을 중동산 원유로 충당한다. 그러나 원화값은 엔화나 대만달러보다가 파른 통화 가치 하락을 겪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엔화와 대만달러가 중동사태 발발 이전인 2월 말과 비교해 각각 2.7%, 0.9%의 달러화 대비 통화

값 하락을 겪은 반면, 원화는 6.9%의 하락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외환시장 원·엔 환율은 100엔당 957.46원까지 올라 작년 6월 이후 1년 만에 최고 수준(원화값 최저)까지 치솟았다.

◆‘자금이탈’ 영향 지속

시장에서는 최근의 원화 약세를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 영향으로 풀이한다. 지난해 말 시작된 ‘반도체 사이클’이 코스피를 가파르게 끌어올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실현과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나서면서 원화값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인 지난 5일까지 2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지속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총 순매도액은 70조원 이상이다. 특히 계속된 순매도에도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 비중은 지난해 말의 36%보다 높은 40%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원화값 하락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발(發) ‘반도체 쇼크’도 최근의 급격한 원화값 하락의 원인이 됐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은 지난 3일(현지시간) 2분기 실적 및 3분기 전망치를 발표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측을 웃돌았지만, 3분기 AI 반도체 관련 전망치는 시장 기대치인 170억 달러에 못미치는 160억 달러로 제시됐다.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 구간에 진입했다는 시장 불안감은 관련주의 급락을 불러왔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관련주 매물이 쏟아져 원화값 하락의 재료가 됐다.

◆외환당국, 적극대응 시사

외환당국은 이날 장중 달러당 1550원 수준까지 치솟은 최근의 환율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벗어난 과도한 환율로 평가하는 한편,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이날 “최근

외환시장의 환율은 수급요인 이외에도 NDF(역외선물환거래) 등 일부 투기적 외환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라며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이 쏠림을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과 이형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공동 명의로 공시됐다.

원화값이 달러 대비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올 하반기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통상 금리가 오르면 통화 가치도 함께 상승한다.

전문가들은 달러화의 강제 요인이 분명하고 원화의 약세 요인도 해소되지 않은 만큼, 단기간 환율이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내다본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반도체 주가를 중심으로 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약화 속에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경제감 등이 달러화 강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이 환율 상승 속도를 제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 재원은 부재하고 중동사태 불확실성도 리스크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남승진 기자 asj1231@



/남승진 기자 asj1231@



젠슨 황 “LG와 로보틱스·미래 데이터센터 아키텍처 설계”

구광모 회장과 최고경영진 회의
냉각, 전력공급 등 첨단기술 필요
엔비디아 AI 생태계 청사진과 일치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젠슨 황 미국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퍼지컬 AI와 AI 인프라(AIDC), 모빌리티 분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양사는 로보틱스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차세대 AI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AI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G와 엔비디아는 8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구 회장과 황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경영진 회의(TMM)를 개최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5일 젠슨 황 CEO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났던 이어 성사된 것으로, 양사는 퍼지컬 AI와 AI 인프라(AIDC),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젠슨 황 CEO는 로보틱스와 AI 인프라를 양사 협력의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8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야 중 하나는 로보틱스와 전자·기계 시스템의 융합”이라며 “LG와 함께 미래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데이터센터는 수백 메가와트(MW) 규모지만 미래 데이터센터는 기

가와트(GW) 규모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냉각과 전력 공급, 데이터센터 설계·건설 전반에 걸친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는 이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미래 데이

터센터 아키텍처를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도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났다. 젠슨 황 CEO는 “AI 산업과 AI 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몇 달 동안 AI는 실제로 유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이 됐다”며 “모든 AI 기업이 매우 빠르게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AI 팩토리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엔비디아의 미래 방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AI 시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양사는 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엔비디아의 로봇 개발 플랫폼인 아이작(Isaac), 그루트(GROOT), 코스모스(Cosmos)를 기반으로 휴머노이드와 물류 로봇 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LG 이노텍은 엔비디아 AI 칩에 최적화된 센

싱 모듈과 광학 부품 개발에 나서고, LG CNS는 제조·물류 현장용 AI 로봇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한다.

AI 인프라 분야에서는 LG전자가 냉각수 분배장치(CDU), 콜드플레이트 등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협력을 확대한다. LG유플러스와 LG CNS는 엔비디아의 DSX AI 팩토리 레퍼런스 디자인을 적용한 차세대 AI 팩토리 구축을 추진한다.

LG AI연구원도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블랙웰(Blackwell)과 AI 개발 플랫폼 네모(NeMo) 등을 활용해 자체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의 성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구 회장은 “엔비디아가 그리는 AI 생태계의 청사진은 고객의 일상과 글로벌 산업 현장에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LG의 미래 모습과 일치한다”며 “양사가 가진 차별화된 역량을 결합해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자 HBM 공급물량·장기계약 ‘주목’... 협력의제 확대 발판

젠슨 황, 방한 마지막 일정

전영현 부회장과 비공개 회동
직후 브리핑서 구체적 성과 기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나흘간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이날 오전 SK하이닉스와 메모리 장기공급계약을 맺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는 어떤 협력 카드를 꺼냈을 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전 부회장 등 삼성전자 반도체 경영진과

비공개로 회동했다. SK와 달리 회동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삼성은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어서 구체적 성과 발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엔비디아는 이날 오전 SK하이닉스와 2년 이상의 메모리 장기공급계약(LTA)을 맺었다. 황 CEO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동 브리핑을 열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가장 큰 메모리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규모와 기간을 공개 석상에서 못 박은 SK와 달리, 삼성전자와는 비

공개 회동으로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것은 협력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베라 루빈용 6세대 HBM(HBM4) 양산 출하를 시작하며 엔비디아 공급망에 가장 먼저 진입했다. 핀당 전송속도 11.7Gbps로 엔비디아 요구 기준을 웃도는 성능을 구현했다. SK하이닉스가 이날 장기계약으로 공급을 확정할 만큼, 삼성전자와도 물량 확대나 장기계약으로 이어질지가 이번 회동의 관심사다.

협력 범위가 메모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삼성을 주목하게 하는 대목이다. 삼성

전자는 HBM 공급에 더해 AI 칩 위탁 생산까지 맡으며 엔비디아와의 협력 폭을 넓히고 있다.

황 CEO는 앞서 삼성전자가 AI 추론용 반도체 그록3 언어처리장치(LPU)를 생산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함께 갖춘 만큼, 삼성전자는 HBM을 넘어선 협력까지 논의할 수 있다.

차세대 제품 주도권도 이번 회동에 걸린 과제다. 삼성전자는 HBM4에 이어 7세대 HBM4E를 올 하반기 샘플 출하할 계획으로, HBM4에서 확보한 흐름을 다

음 세대까지 잇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올해 HBM 매출이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황 CEO가 출국 직전 삼성전자를 따로 찾은 것도 이런 협력 확대 가능성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황 CEO는 해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는 몇 주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따로 만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회동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HBM 사업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치킨·평양냉면·삼계탕까지... 외식·유통가 ‘젠슨 황 특수’

황 CEO, 우래옥·토속촌 등 방문
세븐일레븐 ‘HBM칩’ 매출 766% ↑
BBQ 방문 매장도 주말 매출 20% ↑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이 이끄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기간 동안 광복 행보를 이어가며 ‘K-푸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삼겹살에 소주, K-치킨을 즐긴 데 이어 평양냉면과 삼계탕까지 섭렵하면서 그가 거쳐 간 외식·유통업계가 전례 없는 ‘젠슨 황 특수’를 누리고 있다.

황 CEO는 지난 7일 서울 을지로의 유명 평양냉면 노포인 ‘우래옥’을 찾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전날인 6일에는 서울 남대문시장 칼국수골목과 종로구의 유명 삼계탕 전문점 ‘토속촌’을 잇달아 방문했다. 황 CEO는 토속촌에서 삼계탕과 통닭, 파전 등을 주문해 일행과 나눠 먹으며 한국의 전통인삼주를 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의 K-푸드 사랑은 입국 첫날부터 뜨거웠다. 지난 5일 입국 당시 취재진에게 “한국식 바비큐와 치킨이 그리웠다.

삼계탕도 최고며 전부 다 맛있다”고 밝힌 그는, 당일 저녁 곧바로 서울 마포구 흥대인근 고깃집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 회 의장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및 세계 거두들과 만나 삼겹살에 소주를 즐겼다.

이 자리에서 황 CEO와 총수들은 하이 트진로의 ‘태라’와 ‘참이슬’을 섞은 소맥조 합인 일명 ‘데슬라’와 OB맥주의 ‘카스’를 함께 마시며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갔다.

삼겹살로 1차를 마친 황 CEO 일행의 다음 행선지는 K-치킨의 대명사인 치킨 집이었다.

황 CEO 측이 치킨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즉석에서 결정된 2차 장소는 ‘B BBQ 흥대입구역점’이었다. 본사인 제너시스BBQ조차 사전에 방문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을 만큼 깜짝 방문이었다.

부인 로리 황 여사와 함께 테이블에 앉은 황 CEO는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이해진 의장 등과 함께 BBQ의 시그니처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 8마리와 생맥주, 카스 캔맥주, 그리고 BBQ의 자체 탄산음료인 ‘스파클링 레몬보이’ 등을 주문해 치맥 타임을 가졌다.

황 CEO가 지나간 자리는 즉각적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며 유통가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곳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이다. 황 CEO가 5일 일흥대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준 자체브랜드(PB) 과자 ‘세븐셀렉트 허니바나나맛 HBM 칩스’는 황 CEO 방문 이후 일매출이 전주 동기 대비 무려 766% 급증했다. 함께 나눠준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와 팔도 ‘비락식혜’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이 각각 12%, 13% 증가했다.

기습 방문을 받은 BBQ 흥대입구역점도 비명을 지르고 있다. 2025년 7월에 오픈한 약 40평 규모의 이 매장은 외국인 관광객과 2030 세대가 몰리는 흥대 메인 상권 1층에 위치해 평소에도 매출이 높은 핵심 점포다.

황 CEO 방문 이후 그가 남긴 사인과 앉았던 자리를 인증하려는 발길이 물리면서, 금·토·일 주말 매출이 전주 동기 대비 20% 이상 추가 상승했다.

황 CEO의 치킨 사랑은 주말 프로야구 경기장으로도 이어졌다. 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시구 행사 현장에서는 BB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서울 마포구 흥대 인근의 한 고깃집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이른바 ‘삼소(삼겹살·소주) 회동’ 도중 시민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뉴시스

Q의 ‘크런치 순살크래커’ 113박스가 단체 주문됐다. 크런치 순살크래커는 닭다리살에 오레가노 풍미를 더하고 빵가루 크럼을 입혀 튀겨낸 인기 순살 메뉴다.

이 대량 주문은 황 CEO를 비롯해 경기에 초청된 엔비디아코리아 직원 및 가족들이 경기 관람 중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잠실야구장은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홈구장으로, BBQ는 지난 2019년 입점해 현재 구장 내에서 총 4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방한 당시 황 CEO가 방문했던 간부치킨이 가맹점 전체 매출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본 데 이어, 올해는 미국·중국·일본 등 전 세계 57개국에서 7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BBQ가 배턴을 이어받았다”며 “글로벌 AI 거물과 국내 최고 경영진이 치맥을 즐기는 장면은 단순한 브랜드 홍보를 넘어 K-푸드의 대중성과 상징성을 전 세계에 타전하는 최고의 광고 파급력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KT 장기고객님을 초대합니다

2026년 6월

日 SUN	月 MON	火 TUE	水 WED	木 THU	金 FRI	土 SAT
----------	----------	----------	----------	----------	----------	----------



초대드림 KT 위즈파크 캠핑존, 테이블석 초대드림

쿠폰드림 데이터, OTT/지니 TV VOD/로밍 할인 등 14종 쿠폰드림

KT 장기고객 초대드림/쿠폰드림은 KT 휴대폰, 인터넷, IPTV의 각 이용기간을 합해 5년 이상 되는 고객님들께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초대드림 응모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k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패배 반성부터 한일관계까지 민감 현안 정면 돌파

李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지난해 국민임명식 넥타이 착용 165분 동안 총 21개 질문에 대해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일로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의 넥타이를 매고 기자들 앞에 앉았다. 흰색 바탕에 하늘색 줄무늬의 이 넥타이는 지난해 8월 15일 국민임명식 때 착용한 것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165분(2시간 45분)의 시간 동안 지방선거 결과,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대북정책, 한일관계, 중동전쟁 등 이슈에 대해 특유의 ‘술직탄’ 가 푼 농담을 섞은 대답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0일, 100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취임 후 네 번째로 열린 공식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1시간 30분을 훌쩍 넘긴 165분 동안 21개 질문에 대답했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선거는 정치 중립이어야 하는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 “(선거 후) 한 2~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을 탈환하지 못한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선거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 운영을) 열심히 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국민이 버리기야 하겠어’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며 “마지막 한순간까지 죽을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하고 싶다는 마음이 부족했지 않으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선거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운명을 놓고 수천만명이 고민하는 상황에서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과 탄 마음을 먹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내각과 여당의 겸손한 자세를 강조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는 생각이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당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집권했을 때의 당과 야당이었을 때 당이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본다. 여당은 그릇이 돼,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통합을 해야 한다”면서 “(여당은) 과격할 표현을 하거나 사상 검열, 이해관계를 갖고 모욕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첨예한 이슈였던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게 꽤 많으니,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휘하는 검정이 수사할 수 있지만,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어 “잘못됐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간 데 대해선 “육해공 한 게 아니다. 해도 해도 너무해서 지적 한번 했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는 ‘주먹질’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주먹질에 맞아 다친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 필요에 의해 친하게 지내야 하지만 완전히 협력할 수 있겠냐. 그렇다면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다신 안 때리게”라고 해야 하지, ‘내가 언제 때렸는데’ 미안하다고 했는데 또 해야 해?”라고 하면 마음이 통하겠느냐.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에 있는 정서”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고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대학생 기자들의 질문에는 “갈수록 질문이 어려워진다”고 하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해당 질문은 ‘상경 청년들이 겪는 시간 불평등, 소득 격차 및 계급 고착화 해결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방균형발전 문제와 청년 문제를 섞어서 동시에 타격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청년·지방균형 정책을 설명했다. 다만 마지막으로는 “이야기해봐야 똑같은 정책 나열이라 화날 것 같아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을 마칠 것”이라며 시간의 여유를 주겠다는 뜻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1면 ‘내달 부동산세’서 계속

李 “주가 아직도 저평가 주가가 환율인상 이유”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다. 하지만 아직도 저평가로 생각된다”고 생각한다”며 “전 반도체 특수 상황 이런 것을 빼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코스피) 5000을 넘길 수 있다고 봤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환율에 대해 “(주가) 너무 많이 올라 외환 시장에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며 “주가 오르는 게 외환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으로 갈리는 초과세수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투자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초과세수를 일관적인 세수로 분류해 재정 지출에 쓰는 방법에 대해선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상황에서는 국가부채 상환보다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라,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민주당 극찬 vs 국힘 혹평... 李 대통령 회견 엇갈린 반응

與 “탁월한 소통... 당도 응답할 것”

野 “국민 기만한 허황된 말잔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방침에 전폭적인 응답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허황된 말잔치”라며 깎아내리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과 함께 2026년을 대채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며 “민주당도 전폭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를 냉정하게 진단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포부와 희망을 함께 제시했다”며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 의지가 돋보였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소통 능력이 빛났다”며 “답변 내용도 모든 사안마다 해박한 지식과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두루 지닌 대통령의 면모를 느끼게 해줬다”고 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 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4가지 국정 목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 목표가 되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는데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을 기만한 허황된 말 잔

치”라고 깎아내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은 ‘선관위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무게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은 위기인데 본인의 무수한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는 끝내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를 권력을 이용해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반헌법적 약속을 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포한 꼴”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며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반복했다”며

“국민은 장 보기가 두렵고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데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단일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 정부와 시장 탓으로 떠넘기는 구차한 내로남불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며 “대통령의 말처럼 ‘공급을 늘리는 게 제일 쉬운 일’이라면 왜 지금까지 공급 확대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세금과 규제만으로 시장을 압박했나”라고 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과 우리 기업, 국민 전체가 피땀 흘려 이뤄낸 ‘코스피 8000 시대’를 정권의 과실인 것처럼 가로챘다”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고환율에 대해 ‘주가 오르면 환율이 오른다’고 말했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4부 요인 한자리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개혁 공감대

李, 국회의원·대법원장·헌재소장 등과

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4부 요인과 만나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진상 규명, 책임소재 명확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만남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

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투표용지 사태와 관련해 논의를 했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 행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만큼, 4부 요인들이 모여 해법을 찾자는 것이 이날 만남의 취지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 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며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 주권의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다.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 수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4부 요인이 회동을 갖는 일 자체가 이례

적이라, 이날 회동에서는 이외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동에서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 등의 문제는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인 기형적인 구조 개선 주장은 지속적으로 나온 문제다.

/서예진 기자



Hana Bank Invitational



이승민 | Seungmin LEE

함정우 | Jeongwoo HAM

박은신 | Eunshin PARK

오기소 타카시 | Takashi OGISO

진프하오 | Zihao JIN

호소노 유사쿠 | Yusaku HOSONO

양지호 | Jiho YANG

박상현 | Sanghyun PARK



경춘선·ITX-청춘 타고
남춘천역 이용하면 무료입장

2026.6.18(목) - 6.21(일) | 남춘천 컨트리클럽

주관 | 방송 | **SBS Golf 2** 기획/운영 |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은행 AI 도입·디지털 금융 확산에 1년새 점포 91곳, 인력 909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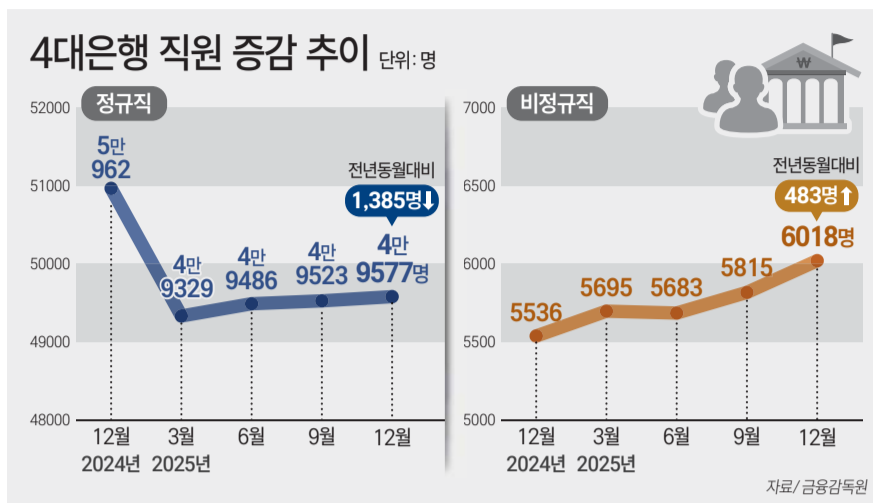
작년 말 4대 은행 점포수 2688개
정규직 직원 줄어 비정규직 채용
당분간 점포·인력 감소 이어질 것
글로벌 금융권, 인력감축 본격화

은행들이 영업점포(지점·출장소)를 줄이면서 인력도 함께 감축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면 영업의 필요성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AI가 단순·반복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은행권의 인력 구조 변화도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영업점포수는 지난해 말 2688개로 1년 전과 비교해 91곳 줄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신한은행으로 1년 새 43곳을 잃었다. 우리은행(28곳), KB국민은행(26곳)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점포 감축과 함께 임직원 수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4대 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총 임직원 수는 5만5725명으로 전년 대비 909명 줄었다. 특히 정규직 직원은 1385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483명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점포와 인력 감소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영업점 방문 수요가 줄어든 데다, AI를 활



용한 고객 상담과 여신 심사, 내부통제 업무 자동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글로벌 금융권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인력감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2월 AI가 "일 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도 일부 직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은행들은 주니어 애널리스트 채용 규모를 최대 3분의 2까지 축소하는 대신 AI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거래 검증과 리스크 관리 등 중간지원 업무(Middle Office)가 AI 자동화에 취약한 영역으로 꼽히면서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은행권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은행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고객 상담 서

비스와 여신 심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모바일뱅킹 이용 확대와 AI 기반 업무 자동화가 맞물리면서 점포 운영 효율화와 인력 재배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AI가 모든 금융 업무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관리와 투자 자문, 기업금융 등 고도의 판단과 고객 신뢰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 업무는 AI가 상당 부분 대체하겠지만 고객 맞춤형 자문과 의사결정 영역까지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인력 감축보다 직무 재편과 재교육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軍 훈련소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한다

금융위, 최대 4000만원 목돈 마련
만 19~34세 청년, 일반·우대형 운영

이달 말부터 오는 8월까지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을 진행하는 '청년미래적금'이 해당 기간 동안 훈련소에 입소하는 군 장병 및 장교·부사관을 대상으로도 계좌개설을 지원한다. 군 장병을 위해 운영되는 군 적금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과 함께 가입하면 최대 4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적립하면 만기시 최대 2200만원(우대형 기준)을 받을 수 있는 적금형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소득 수준과 근로지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청년미래적금은 국내은행의 모바일뱅킹에서 가입이 가능할 예정이지만, 군사훈련에 참여 중인 장병 및 직업군인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방부의 협약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가입신청 기간 및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되는 계좌개설 기간 동안 청년미래적금 가입

을 희망하는 훈련생들이 비대면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계좌개설이 각 은행의 모바일뱅킹을 통한 비대면 가입으로 진행되는 만큼, 해당 기간에 훈련소에 입소하는 군 장병 및 직업군인의 경우 사전에 가입희망 금융기관의 모바일뱅킹 앱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도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하지만, 군 장병 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만큼 일반형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단, 소득구간은 직전 구간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입영 이전에 소득이 없었다면 입영 당해에는 가입할 수 없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복무 초급근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장기간부도야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군 상품과 청년미래적금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육군(18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4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비씨카드, 학원비·쇼핑 결제시 할인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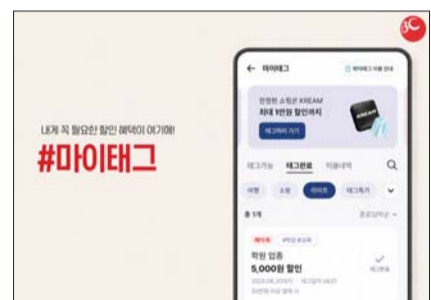
30일까지 '마이태그' 이벤트

비씨카드는 이달 30일까지 고객 맞춤형 할인 서비스 '마이태그' 이벤트를 진행한다. 8일 밝혔다. 마이태그는 생활 금융 플랫폼 '페이북'에서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고, 비씨 개인 신용·체크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학원비, 쇼핑, 외식, 간편결제 등 일상 소비 영역 전반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비씨카드 회원사 발급 카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학원 업종에서 30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학원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교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온·오프라인 쇼핑 혜택도 강화했다. 네이버페이로 100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쿠팡에서는 1만원 이상 결제 시 0.5% 할인을 하루 1회씩 총 3회 지급한다. 이달 8일부터는 한정판 거래



비씨카드 6월 마이태그 이벤트 관련 이미지.

플랫폼인 크림이 마이태그에 추가된다. 10만원 이상 결제 시 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 밀착형 할인 혜택도 있다. 다이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원 할인 혜택을 최대 5회까지 제공한다. 편의점 업종에서는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을 할인해 준다. 커피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말에 더네티·매머드커피·메가MG C커피·컴포즈커피에서 5000원 이상 결제 시 5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당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문화·여가 혜택도 마련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수도권 서세권·비규제 아파트 신고가 행진

(서틀버스+역세권)

지난달 경기 아파트거래 신고가 비중 분당 28%, 하남 21%, 구리 21% 순
수도권 신고가 9.7%, 올해들어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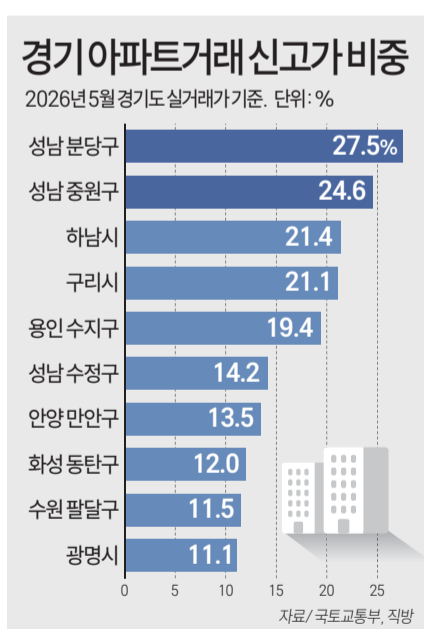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들쭉이 있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좋은 비규제 지역과 반도체 '서세권(서틀버스+역세권·대기업 통근 서틀버스 정류장 인근)'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은 물론 높아진 호가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에서 신고가 비중은 성남시 분당구가 27.5%로 가장 높았으며 ▲성남시 중원구 24.6% ▲하남시 21.4% ▲구리시 21.1% ▲용인시 수지구 19.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구리가 5년 중 한 건이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경기도에서도 규제 지역 지정을 피한데다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과 노후 단지 재건축 기대감 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서세권인 용인 수지구와 화성 동탄구도 작년 대비 신고가 비중이 각각 16.1%포인트(p), 11%p 높아졌다. 특히 동탄은 지난 반년간 신고가 비중이 계속 상승했다.

직방 관계자는 "동탄은 삼성전자 화성·기흥캠퍼스와 ASML 화성캠퍼스 등이



위치한 경기 남부 반도체 산업벨트의 주요 배후 주거지"라며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주거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최근 삼성 전자 노사 임금협상 타결로 주택대출 지원 확대가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도 관련 수요 유입 가능성에 관심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9.7%로 집계됐다. 올해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고,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며 "여기에 지난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앞두고 급매물이 시

장에 나오면서 신고가 거래 비중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올해 2월 31.3%까지 올라선 이후 3월 25.1%, 4월 21.3%, 5월 19.3%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 신고가 비중은 줄었지만 영등포와 동작, 동대문 등은 신고가 거래가 더 늘었다.

강남구 신고가 비중은 19.3%로 전년 동기 대비 31.1%포인트 낮아졌고, 서초구(33.8%, -14.3%p)와 용산구(26.4%, -9.0%p) 역시 감소 흐름을 보였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 현금 동원력이 필요한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관망세가 확대됐다.

반면 영등포구(41.2%)·동작구(35.3%)·동대문구(31.8%)는 신고가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0%포인트 안팎이나 그 이상 상승했다. 이들 지역의 5월 신고가 거래 평균 가격은 영등포구 12억9000만원, 동작구 15억원, 동대문구 11억1000만원으로 주로 10억~15억 원대 거래가 중심을 이뤘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등 실수요가 집중되는 데다 강남권보다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격대라는 점이 신고가 거래 증가로 이어졌다"며 "다만 5월 거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거래 신고가 추가로 반영될 경우 현재 집계된 신고가 비중과 지역별 흐름에 일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현대엔지니어링, 카자흐 화공플랜트 수주

가스처리시설 설계·구매 역무

현대엔지니어링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화공플랜트 프로젝트의 수주를 확보하며 신규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카자흐스탄 국영 가스공사 카자가스(JSCNC QazaqGaz)로부터 카라차가나 가스처리시설(Karachaganak Gas Processing Plant) 프로젝트의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서쪽으로 약 1260km 떨어진 카라차가나 복합단지 내에 연간 50억㎥ 규모의 원료가스를 처리하는 가스처리

시설과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본 프로젝트에서 설계 및 구매 역무를 수행한다.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EPC(설계·구매·시공) 기업 시침(SICIM)의 현지 법인이 시공 컨소시엄 파트너사로 참여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가스처리 플랜트 수행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며 "CIS 지역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글로벌 플랜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주요기업, 젠스 황 회동

최태원 “엔비디아와 함께 미래 AI 인프라 만들어갈 것”

(SK그룹 회장)

반도체 등 협력확대 구상 밝혀
SK하이닉스, 메모리 공동개발
SKT, 클라우드 파트너 합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스 황 엔비디아 CEO가 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SK-엔비디아 협력 언론브리핑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메모리 협력을 넘어 AI 인프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진행된 브리핑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 범위를 그룹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 회장은 “그동안의 협력은 주로 메모리 분야에 집중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SK그룹 차원으로 협력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엔비디아와 함께 미래 AI 팩토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력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로 이어진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메모리 기술을 함께 고도화하고 반도체 설계·제조를 가속화하는 장기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로드맵에 맞춰 개발 단계부터 공급 체계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

이 핵심이다.

공동 개발 대상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베라 루빈과 신규 중앙처리장치(CPU) 베라, AI PC 플랫폼 RTX 스파크, 로봇용 프로세서 젠스 토르 등이다. AI 슈퍼컴퓨터 중심이던 협력이 CPU와 PC, 로봇틱스 플랫폼까지 넓어지면서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공급 영역도 AI 인프라와 퍼스널 AI, 피지컬 AI 분야로 확장된다.

젠스 황 CEO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메모리 파트너”

라며 “SK하이닉스가 없었다면 현재의 AI 산업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는 이제 실제로 활용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모든 국가와 기업이 AI를 활용하게 될 것이고 AI 인프라 구축은 아직 시작 단계”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 혁신도 이번 협력에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쿠다(CUDA)-X 라이브러리와 피직스네모(PhysicsNeMo)를 활용해 반도체 설계·

제조 시뮬레이션을 고도화한다. TCAD(기술 컴퓨터 지원 설계)와 계산 리스그래피 등 개발 과정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향후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와 시뮬레이션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 제조를 위한 디지털 트윈 협력도 추진된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옴니버스(Omniverse)와 오픈USD(OpenUSD)를 활용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가상 공간에 구현하고 의사결정 최적화 엔진 cuOpt와 Metropolis 플랫폼을 활용해 공장 내 설비와 자산 운영 효율을 높인다. 양측은 디지털 트윈을 기존 제조 시스템과 AI 기반 업무 프로세스에 연결해 팹 운영 자동화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그룹 차원의 AI 인프라 구축은 SK텔레콤이 맡는다. 엔비디아 DSX 플랫폼을 기반으로 칩부터 데이터센터 운영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AI 클라우드 협력을 추진하고 AI 작업에 특화된 데이터센터인 AI 팩토리를 2027년 한국에서 먼저 가동할 계획이다. 이후 GW급 인프라로 규모를 키우고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

진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 프로그램에 합류한다. 블랙웰 GPU 기반 AI 학습·추론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베라 루빈 플랫폼까지 순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젠스 황 CEO는 SK텔레콤과의 협력에 대해 “통신 네트워크는 국가 AI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며 “사람과 기업,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통신망이 AI 클라우드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엔비디아 DSX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기업과 산업계에 에이전트 AI, 엔터프라이즈 AI, 피지컬 AI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력은 2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 파트너십으로 추진되며 향후 연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젠스 황 CEO는 “엔비디아는 이미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를 SK하이닉스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AI 인프라 투자는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원래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두산그룹, 피지컬 AI·로봇릭스 등 엔비디아 협력 확대

그룹 핵심사업 전반 협력 추진
박정원 회장 “AI 사업기회 모색”

두산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봇릭스, AI 팩토리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두산은 에너지, 전자소재, 로봇릭스 등 핵심 사업 전반에 걸쳐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능형 로봇릭스와 에너지 솔루션, 고

성능 전자소재 등 두산의 핵심 사업이 엔비디아가 추진하는 AI 팩토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협력을 추진하게 됐다.

양사는 두산의 제품과 기술 및 제조역량을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피지컬 AI 플랫폼과 연결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은 “두산그룹은 오랜 기간 축적한 제조 역량을 토대로

에너지, 로봇릭스, 첨단소재 분야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AI팩토리 시대를 맞아 우리 사업 분야에서 AI를 적용하고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데 이번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중심국가로, 세상을 건설하고 이동시키며 에너지를 공급하

는 기업들에게 피지컬 AI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엔비디아 DSX(통합 AI팩토리 설계 아키텍처)와 피지컬 AI를 두산의 에너지, 로봇릭스 및 첨단소재 사업과 결합함으로써, 두산그룹은 지능형 로봇, 자율 산업 장비, 차세대 인프라 등 AI 시대의 핵심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K T 위즈 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시구 및 시타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성장성과 나눈다… 한 달간 ‘감사 페스티벌’

‘5년간 5조원 사회 기여 확대’ 첫 실행
제품 구매액 20% 온누리상품권 지급

삼성전자가 성장 성과를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대규모 행사에 들어간다. 제품을 사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한 달간 풀리는 상품권만 4000억원 규모다. 가격 할인 대신 전통시장에서 쓰이는 상품권을 택해 환원 효과를 지역 상권으로 흘러보내는 구조다.

삼성전자는 8일부터 한달 간 전국 온·오프라인 1000여개 매장에서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이 구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제품 할인 대신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고객 혜택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혜택이 지

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효과를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참여 범위는 직영 매장을 넘어 다양한 유통 채널로 확대됐다. 전국 400여개 삼성스토어를 비롯해 전자랜드·하이마트 등 가전 양판점과 이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삼성닷컴과 삼성전자 사업자몰, 네이버쇼핑·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제품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요금제와 함께 구매할 고객 대상에 포함된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군인·경찰·소방·교정 공무원 등 ‘K-히어로’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도 마련됐다. 기본 제공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0%에 추가 10% 할인을 더해 총 30%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K-히어로 고객은 전용 ‘삼성전자 패밀리몰’ 내 특별판 페이지에서 구매하면 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혜택을 받으려는 고객은 9월 30일까지 삼성닷컴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구매처와 주민번호 등 구매 정보를 입력하고 제품 명판 사진과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태블릿을 구매한 고객은 해당 단말에서 삼성닷컴 앱으로 신청한다. 이동통신사 개통 제품은 최초 통화 이후 통신사와 개통 일자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신청 완료 후 약 2주 뒤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자 명의의 ‘디지털온누리’ 앱으로 지급된다.

한편, 이번 감사 페스티벌은 삼성전자가 약속한 ‘5년간 5조원 사회 기여 확대’의 첫 실행 계획이다.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달 27일 2026년 임금·단체협약 최종 타결 직후 공동 메시지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G모빌리티, ‘무쏘’ 글로벌 론칭 본격화

튀르키예·칠레 등 수출 드라이브

KG모빌리티(이하 KGM)가 국내 중형 픽업트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무쏘’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KGM은 튀르키예 시장 론칭에 이어 칠레에서 해외 딜러와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무쏘 글로벌 론칭 행사를 갖고 중남미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8일 밝혔

다. 지난 4일과 5일(현지시간)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칠레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8개국 딜러와 인플루언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튀르키예에서 31개국 딜러와 기자단을 초청해 진행한 무쏘 글로벌 론칭에 이은 개별 국가별 론칭 행사로, 무쏘의 주행 성능과 승차감 등 차별화된 강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제품 설명과 함께 시승 행사로 진행됐다. /양성운 기자

삼성중공업, LNG선 1척 3855억 수주

상반기 내 상선 수주목표 달성 전망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을 3855억원에 수주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은 상반기 28척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FLNG) 1기

등 총 29척, 85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연간 수주 목표 139억달러의 61% 수준이다.

상선 부문 수주 실적은 52억달러로, 연간 목표 57억달러의 91%를 채웠다. 삼성중공업은 상반기 목표의 상반기 내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성운 기자

중소 50대 직장인 월급 381만원 대기업 30대보다 209만원 적어

중기연, 대·중소 임금격차 보고서
중소 전 연령대, 대기업 20대 못 미쳐
평균 월급은 절반 수준인 53.2%
10년 이상 근속해도 격차 여전
성과보상 기반 확충 필요성 제기
급여 지불 여력 확대 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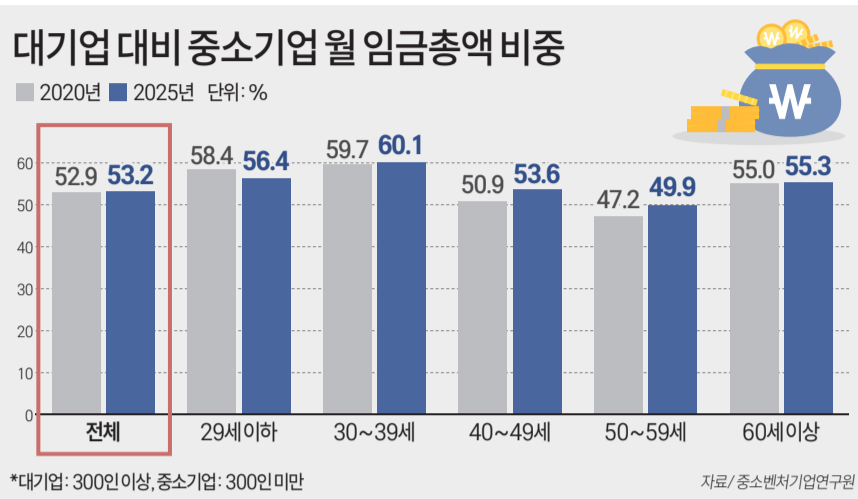
중소기업에 다니는 50대 직장인이 대기업 30대보다 월급을 210만원 가량 적게 받고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모든 연령대 근로자 월급이 대기업 20대의 월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성과보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급여 지불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8일 내놓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분석'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50~59세의 월 임금총액(2025년 기준)은 381만원으로 같은 연령대의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763만원)보다 382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수준인 셈이다. 50대 중소기업 근로자는 30대 대기업 근로자(590만원)보다 월급이 209만원 적었다.

연령대별 월 임금총액을 살펴보면 대기업에 다니는 29세 이하가 417만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가장 많이 월급을 받는 40~49세(404만



원)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청년(29세 이하)의 월급수준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 50대는 162%, 대기업 50대는 325%로 각각 나타났다.

보고서를 집필한 중기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29세 이하 청년의 임금 격차가 최근 5년간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청년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월 임금총액 비중은 2020년 58.4%에서 2025년엔 56.4%로 2%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의 이 기간 연 평균 임금총액 인상률도 대기업은 3.9%였지만 중소기업은 3.2%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근속 연수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300인 미만 기업에서 10~15년 일한 근로자 월급은 452만원으로 대기업 1~3년 차(472만원)보다 적었다. 300인 이상 기업의 10~15년 연차 월급은 738만원으로, 같은 연차의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286만원이나 많았다.

또 중소기업의 월 임금총액은 336만원으로 대기업(632만원)의 53.2% 수준이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30~299인 중기업(403만원)은 대기업의 63.8%, 5~29인 소기업(340만원)은 대기업의 53.8%, 4인 이하 소상공인(239만 원)은 대기업의 37.8%로 분석돼 종사자 규모가 작아질수록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여성의 월 임금총액은 265만원으로 대기업 남성(711만원)의 37.2% 수준에 그쳤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주로 성과급,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과도하게 차이 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중소기업과 재직 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 지원사업 예산을 늘리고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HJ중공업, 자율운항으로 스마트십 강화

HD현대 아비커스와 기술협력 MOU
자체 건조 선박에 솔루션 적용 추진

HJ중공업이 자율운항 솔루션 도입을 통해 스마트십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선박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디지털 기술 수요가 커지자 자체 건조 선박에 관련 솔루션을 적용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HJ중공업은 최근 그리스 아테네 메트로폴리탄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포시도니아(Posidonia)'에서 HD현대 아비커스와 자율운항 솔루션 공급 및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 아비커스는 HD현대가 지난 2020년 설립한 선박 자율운항 솔루션 전문 자회사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대형 상선용 2단계 자율운항 솔루션인 '하이 나스 컨트롤(HiNAS Control)'을 개발했으며, 2022년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HJ중공업이 개발·건조하는 선박에 하이 나스 컨트롤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자율운항 선박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협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글로벌 해운·조선 시장에서는 디지털 화와 자율운항 선박 수요가 확대되면서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왼쪽)와 강재호 HD현대 아비커스 대표가 지난 4일 그리스 아테네 메트로폴리탄 엑스포 센터에서 개최된 포시도니아에서 자율운항 솔루션 공급 및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J중공업

선박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십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자율운항 기술은 항해 지원과 충돌 위험 저감, 운항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차세대 선박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HJ중공업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마트십과 디지털 선박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율운항 기술 적용 선박의 트랙 레코드를 확보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이번 협약은 회사의 자율운항 선박 개발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트랙 레코드를 확보해 기술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중기부, 성과 낸 직원에 8400만원 특별포상

모두의 창업 TF 3700만원 받아
중동전쟁 대응 TF는 42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적 현안 해결과 탁월한 정책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총 8400만원의 특별성과 수시 포상을 실시했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은 기존 평가 체계로 적시 보상이 어려운 성과를 즉시 발굴·보상에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국정 현안 대응 등 긴급성이 높은 과제 ▲객관적인 수치 등을 통해 성과 입증 가능한 과제 ▲국무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과제 등을 중심으로 후보 과제를 선정한 뒤 부내 공적 검증과 민관 합동 공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건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 '모두의 창업 TF'는 프로젝트 개시 약 50일 만에 6만20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내

며 정부 창업·아이디어 공모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공모로 3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중동전쟁 대응 TF에는 4200만원이 돌아갔다. 해당 TF는 위기 발생 당일 수출 지원센터에 피해신고 창구를 설치해 중소기업 피해 애로를 파악하고 관련 협단체와 소통채널을 구축했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기업현장의 정책수요를 지속 발굴하는 등 중소기업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밀착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배선욱 주무관은 기존 동행축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수제버거 페스티벌을 기획, 전국 최초의 동행축제 신판매진 모델을 창출해 500만원을 받았다.

특별성과 수시포상 이후에는 '직함은 로그아웃(Log-out), 소통은 로그인(Log-in)'을 주제로 MZ어벤져스 스타트업 데이가 열렸다.

/김승호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K-팜테크 유망기업 25곳 선정·본격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난임 시술 기술부터 안전까지 여성의 삶을 혁신할 'K-팜테크' 유망 기업 25개사가 최종 선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8일 여경협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팜테크 산업 육성 사업'은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제품·서비스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는 298개사가 물려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각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중기부와 여경협의 지원을 받던 삼아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본격적인 시장 진출과 판로 확보에 나선다. 이번 공모에는 난임 시술 과정을 표준화한 다바이스부터 집에서 관리하는 질 건강 진단 시스템까지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기술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AI 기반의 임신·출산·육아 플랫폼과, 불법 촬영 위험을 감지하는 다바이스로 일상 속 여성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는 솔루션도 포함됐다. 여경협은 사업지원금을 통해 파열된 임상, 실증, 지식재산권 확보와 마케팅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선박가구 매출 3년새 2배 성장

현대리바트 선박가구 사업 순항
컨테이너선 13척 인테리어 계약
지난해 매출 300억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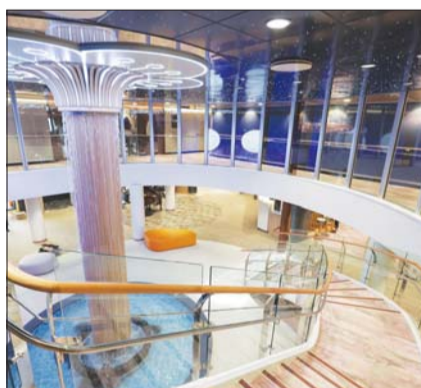
현대리바트의 선박 가구 사업이 3년새 매출이 두배 늘며 순항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는 최근 경남 거제에 있는 국내 조선소와 컨테이너선에 대한 선박 가구 납품 및 선원 복지 공간 인테리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리바트는 길이 399.98m, 폭 61m로 축구장 4개 크기에 달하는 컨테이너선 13척의 선실과 커뮤니티 라운지, 레스토랑, 시네마룸, 헬스장 등 선원 복지 공간의 인테리어를 설계하고 맞춤형으로 제작한 선박 가구를 공급, 시공할 예정이다.

현대리바트는 이번 계약뿐만 아니라 매년 60척 가량의 선박 인테리어, 가구 공급 계약을 수주하는 등 최근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선박 가구 사업 매출은 300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로 성장했다. 현대리바트는 국내 가구업계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0년부터 선박 가구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단순 가구만 납품하던 선박 가구 사업



현대리바트가 최근 가구 공급 및 인테리어를 진행한 여객선 실내 전경.

을 공간 인테리어 컨설팅으로 영역을 넓힌 것이다. 선박 내 공간 인테리어 전체를 탄기로 수주 받는 경우 한 척당 매출은 5억~7억원으로, 선박 가구만 납품할 때 발생하는 매출(2억~3억원)보다 두 배 높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선박 가구는 염분과 습기, 진동 등 극한의 해상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까다로운 안전 규정에 부합하는 방염 성능, 그리고 의자를 바닥에 탈부착할 수 있게 하는 씨패스팅(Sea-fastening) 등을 고려해 특수 제작해야 하는 분야"라며 "가정용 가구, 선박 가구, 호텔 인테리어 등 각 분야에서 쌓아온 강점과 노하우를 활용해 B2B 사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한유원, 정책면세점 입점기업 목소리 청취

이태식 대표, 구리 사업장 방문
프리미엄 티 브랜드 '꽃을담다' 찾아

이태식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 대표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정책면세점 입점기업 '꽃을담다'를 방문,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8일 한유원에 따르면 꽃을담다는 지난 2016년 설립된 프리미엄 티 제조 전문 중소기업으로, 전국 50여 개 농가에서 직접 수확한 꽃과 줄기로 만든 프리미엄 꽃차와 허브 블렌딩 티 브랜드 '알디프(Aldi f)'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 전통 차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제

품력을 인정받아 2024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K-수출전략품목'으로 뽑혔고 정책면세점에 입점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식 대표는 꽃을담다 이인표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제조시설을 견학하고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지원사업 참여 후기 등을 폭넓게 청취했다.

이인표 대표는 "올해는 창업 1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인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유원의 판로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유료방송 가입자 정체... SKB, AIDC로 매출 1조 노린다

(2030년까지)

IPTV·SO 가입자수 증감률 1% 안팎
시장 점유율도 수년째 큰 변동 없어
AWS와 울산에 AIDC 구축 착수
지난해 매출 5199억... 34.9% 성장

유료방송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
가운데 SK브로드밴드가 인공지능 데이
터센터(AIDC)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전국 유선망과 데이터센터 자산을 앞세워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중
합유선방송(SO) 가입자 수 증감률은 1%
안팎이다. 신규 고객 유입이 줄어 사실상
시장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2025년 상반기 IPTV 가입자 증감률은 0.
49%를 기록했으며, SO는 1.48% 역성장
했다.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도 수년째 큰 변
동이 없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시장
에서는 KT에 이어 2위, SO 시장에서는 L



가산 AI 데이터센터.

/SK텔레콤

G헬로비전에 이어 2위에 머물러 있다. 특
히 가입자 규모가 가장 큰 IPTV 시장에서
KT의 점유율은 20~25%인 반면 SK브로
드밴드는 16~18%로 격차를 좁히지 못하
고 있다.

미디어 사업이 고전하는 가운데 전국
유선망을 활용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

IDC)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S
KB브로드밴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
서버를 유치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
C)를 운영하며 전력·냉각 설비와 기업 고
객 관리 경험을 쌓아왔다. 여기에 전국 단
위 광케이블망과 기업용 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센터 간 연결과 기업간거래(B2B)

기반을 갖췄다.

2021년에는 당시 최대 규모인 가산 데
이터센터를 가동하며 클라우드 수요 대응
에 나섰다. 이후 AI 연산 수요가 급증하자
일반 서버를 수용하는 IDC에서 고전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운용하는 AID
C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지난해에는 아
마존웹서비스(AWS)와 울산에 100MW급
대형 AIDC 구축에 착수했다. 2027년 가
동을 목표로 하는 이 시설은 향후 전력 수
요에 따라 규모가 확대된다.

SK브로드밴드는 AIDC를 중심으로 사
업 재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SK브로드
밴드의 최대 주주인 SK텔레콤이 지난 5월
잔여 지분을 취득해 완전자회사 체제를 갖
추면서다. 최근에는 정석근 SK텔레콤 AI
사내독립법인(CIC)장이 SK브로드밴드 데
이터센터(DC) 본부장으로 선임돼 전사적
인 AI 전략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그룹 내 AI DC 자산이 SK브로드밴드
에 집중된 점도 긍정적이다. SK브로드밴
드는 지난해 SK AX가 운영하던 30MW 규

모 판교 데이터센터를 5068억원에 인수했
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AI DC는 분
당·가산 등 총 9곳이다.

AIDC 사업 확대는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SK텔레콤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AIDC 매출은 5199억원으로 전년보다
34.9%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가산·양
주 데이터센터 가동을 상상에 판교 데이
터센터 인수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다만 AIDC 사업이 장기적으로 유료방
송의 수익성 둔화를 상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규모 전력·냉각
설비 투자가 선행되는 사업인 만큼 투자
비를 회수하려면 데이터센터 가동률을 안
정적으로 유지할 대형 고객 확보가 관건
이다.

SK브로드밴드는 울산 AI DC를 중심
으로 2030년까지 300MW 이상의 데이터센
터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1조
원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목
표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LG CNS, 에이전틱 AI로 시스템 개발한다

‘데브온 에이전틱 AIND’ 선보
‘지식 파운데이션’으로 맞춤형 개발
스펙 주도 개발방식... 일관된 품질

LG CNS가 AI 코딩 기업 클라인과 공
동 개발한 에이전틱 AI 기반 개발 플랫폼
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 CNS는 ‘데브온 에이전틱 AIND’
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데브온 에이전틱 AIND(이하 AIND)
는 다양한 산업 영역의 시스템을 구축·운
영해 온 노하우를 집약해 각 공정을 수행
한다. 사용자가 자연어로 요구사항을 입
력하면 ▲고객 요구 사항 분석·설계 ▲코
딩 ▲테스트·품질 검증 등에 특화된 AI에
이전트가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예를 들어 금융사가 기존 코어뱅킹 시
스템에 신규 금융 서비스를 추가할 때 사
용자가 “계좌 시스템과 연계된 예·적금 자

동이체 서비스를 구축해줘”라고 입력하
면, 분석·설계 에이전트가 자연어 기반의
고객 요구사항 문서를 분석해 시스템 구
조를 설계한다. 설계 안을 이어 받은 코딩
에이전트는 금융사의 개발 표준에 맞춰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결
과 검토·승인 역할에 집중해 개발 소요 시
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핵심 기능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IT
정보를 통합·분석하는 ‘지식 파운데이션’
이다. 이는 개발 표준, 보안 규정, 시스템
소스코드, 개발 산출물 등 기업의 IT 정보
를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온톨
로지 데이터베이스다. AIND는 이를 기
반으로 기업의 시스템·업무 학습해 고
객 맞춤형 개발을 수행한다.

회사 측은 AIND에 스펙 주도 개발 방
식을 적용했다. AI가 사전에 정의된 기준
에 따라 설계·코딩·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에 관계없이 일관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 효율과 편의성을 높
이고 AI 환각(할루시네이션)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AIND는 개발 언어와 관계없이 시스템
을 최신 기술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로 전
환하는 레거시 모던라이제이션도 지원한
다. 특히 코볼(COBOL) 등 구 언어로 개
발된 시스템을 자바(Java)로 자동 변환해
구축하고, 자바 기반의 구형 시스템은 최
신 아키텍처와 개발 표준에 맞춰 고도화
한다.

기존에 수 주 이상 소요되던 코드 분
석·변환·검증 작업을 분 단위까지 획기적
으로 단축해 생산성을 극대화했다. LG C
NS는 현재 국내 대형 금융사 차세대 프
젝트에 AIND 기반 ‘코볼 to 자바’ 기능
을 적용 중이다.

/조민선 기자

네오위즈, 창사 첫 개발자 대표 체제 구축

박성준 신임 대표이사 내정

네오위즈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개발자
출신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한다. 신작 개
발 역량을 경영 전면에 내세워 글로벌 게
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네오위즈는 8일 박성준 신작개발그룹장
(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밝
혔다. 박 내정자는 배태근 대표와 함께 공
동대표 체제로 회사를 이끌 예정이며, 오
는 8월 정기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식 취
임한다.

네오위즈는 신작 파이프라인 가동이 본
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개발 현장의 전문
성과 실행력을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해 이번 인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신작 개발
과 글로벌 시장 성과 창출에 전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 조직과 경영



진 간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
이다.

박 내정자는 2013년
네오위즈 CRS 개발이사
를 시작으로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콘
솔개발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9년부
터 라운드8 스튜디오 본부장을 맡아왔으
며, 2023년부터는 신작개발그룹장을 겸임
하며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해왔다.

특히 글로벌 흥행작 ‘P의 거짓’과 확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 개발을 이끈 핵
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개발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콘솔 시장에서 네오위즈의 경쟁
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대표 취임 이후에도 신작개발그룹장을
겸임하며 주요 프로젝트 개발과 경영 전
략을 연결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SK AX-머서, AI로 조직인사 혁신 박차

AI+휴먼조직 운영 모델 개발 협약

SK AX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
직의 인사 제도를 설계하는 에이전틱 AI
를 글로벌 인사조직(HR) 컨설팅 기업 머
서(Mercer)와 공동 개발한다. SK AX는
글로벌 HR 컨설팅기업 머서와 ‘AI+휴먼
조직 운영 모델 개발 및 에이전틱 AI 플랫
폼 구축 공동 사업 수행 협약’을 체결했다
고 8일 밝혔다.

양사는 AI를 활용해 기업 내 조직 구조
와 업무 방식 재설계를 지원한다. 특히 ▲
사람-AI 협업을 위한 조직운영 모델 수립
과 AI 에이전트 솔루션 개발 ▲인재 채용·
육성·평가 전략 및 운영체계 구축 ▲AI 기
반 문제 해결 역량 진단 등을 협력한다.

SK AX는 실제 업무 환경에서 사람과
AI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지능형 인사조
직(HR) 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하고, 머
서는 글로벌 HR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별 조직운영 모델과 인사 제도를 설
계한다.

이는 최근 기업들의 고민이 하네스 엔
지니어링에 집중돼 있는 점을 반영한 것
이다. AI가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서 자율적으로 실행되는 환경을 만
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조직 운영 및 HR 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SK AX는 지능형 HR 플랫
폼을 자체 개발해 AI 중심의 조직 구조 설
계와 인력 채용, 육성, 성과 관리 및 평가
를 가능하게 한다. 구성원들의 역량과 업
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과 전
사 운영 혁신도 기대된다. 회사 측은 AI
를 기반으로 사내 시스템과 업무 데이터,
의사 결정이 연결돼 전사적 통합과 시너
지 창출이 가능해지고 이는 의사결정 속
도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고
설명했다.

/조민선 기자



김완중 SK AX 사장(왼쪽)과 장지원 머서코리
아 공동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SK AX 본사
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SK AX

김완중 SK AX 사장은 “AI 시대의 경
쟁력은 단순히 AI를 도입했느냐가 아니
라, 조직 전체가 AI와 함께 움직일 수 있
도록 일하는 방식과 운영 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SK
AX는 그 누구보다 앞서서 진정성 있는
AX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머
서의 차별적인 글로벌 HR 인사이트와 역
량을 결합해 기업 고객이 조직 운영부터
인재 육성, 업무 방식까지 AI 중심으로 혁
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 광화문서 월드컵 국가대표 팝업 운영

대한축구협회와 ‘KT 온마루’서 진행
AI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 등 마련

KT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대한
축구협회(KFA)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
표팀 팝업 스토어를 공동 진행한다 고 8일
밝혔다.

팝업 내에는 AI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
과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담은 전시 콘텐
츠가 마련됐다. 국가대표팀 사인 유니폼
과 공인구, 트로피 등을 비롯해 2022년까
지의 대한민국 축구 역사 발자취를 볼 수
있다.

대표 프로그램 ‘AX 로봇 드로잉’은 사
전에 찍힌 관람객 사진을 AI 로봇이 캐리
커처로 만들어 준다. 관람객은 완성된 결
과물을 현장에서 받아볼 수 있다. ‘AX 포
토 어시스트’에서는 갤럭시 S26 포토 어
시스트 기능을 활용해 셀카를 촬영한 후
축구 관련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된다. 이
후 생성된 응원 콘셉트 이미지를 출력할



KT임직원들이 KT 온마루 월드컵 팝업을 소개하
고 있다. /KT

수 있다.
팝업 입장 시 선수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입력하면 해당 메시지가 대형
미디어 스크린에 아트월 형태로 구현되는
‘응원 메시지 미디어월’도 운영한다.

한편, 이번 팝업은 8일부터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2층에 위치한 체험형 공간
‘KT 온마루’에서 연다. /조민선 기자

주가는 급락, 목표가는 상향... 반도체주 향한 잇달린 전망

‘베라 루빈 쇼크’, 하락 원인 꼽혀
외국인 매도세 등 추가 하락 우려
증권업계 “AI 메모리 수요 지속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 자체가 구조적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노무라증권)

“스페이스X의 AI 패권 경쟁 참여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발행할 거대한 ‘메모리 빌지’ (Bill·청구서)의 증액으로 귀결될 것이다.”(삼성증권)

미국발 ‘반도체 쇼크’에도 증권가에서는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을 한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잇따르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온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10.18% 급락한 29만 5500원에 마감하며 사흘 연속 하락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 역시 추락했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전날보다 7.68% 내린 191만 1000원까지 하락했다. ‘30만전자’, ‘200만닉스’의 벽이 깨진 것이다.

최근 반도체 급락세는 ‘베라 루빈 쇼크’ 타이탄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베라 루빈 쇼크’란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서버 1대당 메모리 반도체 탑재량이 절반으로 줄어 들

어난 우려에 관련 기업 주가가 급락한 현상이다.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도 불안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은 팔고 나가는데 개인만 고점에 물린 것 아니냐”, “대폭락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등 우려 섞인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국내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약 420만명에 달한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반도체 대형주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단기 변동성은 커졌지만, 실적 기반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49만원에서 53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31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올렸다. 에이전트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와 장기 공급계약 확대를 반영한 결과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조정을 단기 조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AI 투자가 생존의 문제인 만큼 투자를 줄이기 어렵다”며 “반도체 업황 강세가 지속되는 한 한국 증시의 펀더멘탈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BNP파리바 등이 제기한 메모리 고점론에 대해서도 “AI 투자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데이터센터 내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점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SOCAMM

2채용량 감소는 수요 감소가 아니라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사양 재분배와 출하 구성 조정의 의미”라며 “AI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고 공급 부족 상황도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SK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각각 61만원, 400만원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조정은 과열됐던 주가와 수급 부담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과정”이라며 “향후 주요 경제지표와 실적, 수급 흐름이 투자 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AI 기대 약화와 금리 환율 변수까지 겹친 상황”이라며 “10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12일 스페이스X 상장, 24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등이 향후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스페이스X, IPO 목표액 2배 자금 몰렸다

1500억달러 투자 수요 확보

미래에셋 청약 5억달러 조기 마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공모 목표액의 두 배에 달하는 1500억달러(약 234조원) 규모의 투자 수요가 몰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청약 물량이 수분 만에 소진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약 1500억달러 규모의 주문을 확보했다. 이는 회사가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하려는 750억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일부 대형 기관투자자의 주문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종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로 책정됐으며 기업가치는 약 1조 75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장 직후 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권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 센터에 있는 한 건물에 스페이스X의 로고가 붙어 있다. /AP뉴시스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를 단순한 우주 발사 기업이 아니라 우주 운송과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아우르는 차세대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사 측도 투자설명회에서 우주 발사와 인터넷 연결, AI 사업을 통해 수조달러 규모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스페이스X 투자 열기가 뜨

겁다. 미래에셋증권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은 이틀 연속 조기 마감됐다.

지난 5일 진행된 1차 청약에서는 3억달러 규모 물량이 접수 개시 1분 만에 소진됐고, 8일 진행된 2차 청약 역시 2억달러 규모 물량이 2분 만에 모두 판매됐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계획했던 총 5억달러 규모 모집을 모두 완료했다.

이번 청약은 최소 투자금액이 10만달러에 달하는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 방식으로 진행됐음에도 단기간에 물량이 소진됐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우주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스페이스X의 성장성과 상장 이후 주가 상승 기대감이 투자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IPO 시장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거래인 데다 스타링크와 AI 사업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기관과 고액자산가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스페이스X 상장을 계기로 우주산업 관련 투자 관심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신한자산운용, ‘수탁자책임위’ 신설

업계 최초 사외이사 위원장

신한자산운용이 수탁자 책임활동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사외이사 위원장을 맡는 수탁자책임위원회회를 마련했다. 투자·영업 부문과 일정 부분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신한자산운용은 업계 최초로 사외이사 위원장을 맡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의결권 행사, 주주활동 등 투자자와 수익자의 장기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탁자 책임활동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존 ESG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던 관련 안건을 별도 위원회로 분리해, 투자·영업 부문과 일정 부분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국내의 스튜어드십코드 기준은 단순한 의결권 행사를 넘어 이해상충 관리, 의사결정의 독립성, 투명한 기록 및 공시 체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말한다.

신한자산운용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수탁자 책임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위원장은 신선헌 사외이사가 맡는다. 신 사외이사는 법무법인 리우 파트너 변호사로, 금융·자본 시장 분야에서 오랜 전문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다.

신한자산운용은 수탁자책임위원회 신설과 함께 기존 ESG위원회도 전사적 ESG 투자전략 회의체로 재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밸류업 공시 731곳 돌파... 시총 비중 83%

밸류업지수 3977선 최고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에 참여한 상장사가 누적 730곳을 넘어섰다. 밸류업 지수도 정부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정책과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8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총 731개사(코스피 343개사·코스닥 388개사)로 집계됐다. 지난 5월 한 달간 신규 공시에 나선 기업은 17개사다.

공시기업의 시가총액은 총 6260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시장 시가총액의 83.1%를 차지했다. 특히 코스피 공시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코스피 전체 시총의 87.8%에 달했다.

주기적 공시도 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주기적 공시를 제출한 기업은 총 113개사로, 5월에는 티씨케이, 현대퓨처

넷, 한섬, 메리츠금융지주 등 10개사가 관련 공시에 참여했다.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노력도 이어졌다. 지난 5월 32개 상장사(코스피 22개사·코스닥 10개사)가 총 8172억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LG는 약 2500억 원, 영원무역홀딩스는 1118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으며, 셀트리온은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의 성과도 가시적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지난달 29일 3977.00포인트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수 산출 개시일(2024년 9월 30일·992.13포인트) 이후 누적 수익률은 300.9%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226.9%)을 74.0%포인트 웃돌았다.

밸류업 ETF 13종목의 순자산총액도 지난달 말 기준 4조 3000억 원으로 늘어 최고 설정 시 대비 787.8%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외국인통합계좌, 증권업계 새 먹거리 부상

미래에셋, 싱가포르 증권사와 계약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사려면 국내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던 진입 장벽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도 외국인통합계좌(Omnibus Account)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증권업계의 해외 개인투자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싱가포르 대형 증권사 UOB Kay Hian과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UOB Kay Hian은 싱가포르를 비롯해 중화권과 동남아 전역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현

지 대표 증권사다.

외국인통합계좌는 해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절차가 단순해지고,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해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제도는 2017년 도입됐지만 계좌 개설 주체 제한과 보고 의무 등 규제로 실제 활용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규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최근 들어 시장이 빠르게 열리고 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하나증권이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홍콩 펄퍼 증권과 손잡고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어 삼성증권은 지난달 미국 대형 온라인 브로커 인터랙티브브로커스(IBKR)와 협업해 서비스를 개시했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이유는 외국인 개인투자자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외국인 거래는 기관 중심이었지만, 통합계좌가 활성화되면 미국·동남아시아·중화권 개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직접 투자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허정윤 기자

무안~신안 52km 전력망 완성 호남 재생에너지 숨통 트인다

한전·기후부·전력거래소 발표
154kV 송전망 지난달 30일 준공
전남 출력제어 올해 82회로 급증
190MW 접속대기 해소 기대
도서지역 고난도 공사 마무리

전남 무안군과 신안군을 연결하는 새로운 전력망이 완성됐다. 그간 호남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현상이 완화되고, 전력 계통 연계가 기다리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접속 대기 현상도 대거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라남도 무안군과 신안군을 잇는 154kV 송전망(전남 운남-신안-읍동 간, 총 연장 52km)이 지난 달 30일 최종 준공됐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상 변화에 따른 전력 과잉 생산 문제가 대두됐다.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해 발전량을 강제로 조절하는 '출력제어' 조치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전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는 2023년 2회에서 2024년 27회, 2025년 82회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 무안과 신안을 연결하는 대규모 송전망이 가동되면서 생산된 전력을 인근 수요지로 원활하게 전송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전 측은 이번



154kV 무안-신안 간 송전선로 사업. /한전

전력망 확충을 통해 전남 지역의 출력제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전력망 용량 부족으로 계통 연계를 시도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던 약 19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송전망 구간은 대부분 도서(섬) 지역으로, 건설 과정에서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됐다. 섬과 섬을 무려 22번이나 횡단해야 했으며, 섬 사이의 최대 선로 길이는 2km에 달했다. 특히 전선을 지탱하기 위해 세워진 철탑의 높이는 263m로 국내 최고 높이이다.

한전은 이러한 난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철탑조립 전용 크레인 개발 ▲특수

전선을 활용한 철탑 높이 최적화(축소) ▲친환경 진입로 부설 공법 등 신기술과 신공법을 대거 도입했다. 그 결과 지형적 제약과 위험 요인 속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무재해 준공'을 달성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가속화와 첨단 전력산업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망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전력설비 건설사업이 전국의 다양한 지역과 지형적 제약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신공법 개발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韓·카자흐, 원유 도입 안정화 협력 강화

김정관 산업장관, 카자흐스탄 공동위 개최
CEPA·기업으로 해소 등 방안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앙아시아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국내 원유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예르사인 나가스파예프(Yersayn Nagaspayev)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장관과 '제11차 한-카자흐스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했다.

공동위는 양국 정부 간 무역협정(1992년 발효에 따른 최고우급 협의체로, 2024년 5월 회의 이후 2년 만에 열렸다.

양측은 이날 공동위에서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건설 ▲디지털·지식재산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 투자 분야에선 양국 간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한-카자흐 CEPA' 체결 추진 방안을 논의했고, 현지 진출한 전자·자동차·플랜트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애로 해소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양측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원유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예를란 아켄제노프 에너지부 장관과 별도 면담에서도 지난 4월 강훈식 전락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의 카자흐스탄 방문 이후 원유 도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원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우리 기업이 수주한 카라차가낙 가스처리 플랜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에카바투스 발전소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정위, 납품업체·대리점 이익률 첫 조사

유통·대리점 5만7000여곳 대상
거래 집중도·대기업 의존도 파악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갑을(甲乙)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납품업체와 대리점의 영업이익률과 거래 집중도를 처음으로 조사한다.

공정위는 8일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통분야의 경우 백화점·온라인쇼핑몰 등 9개 업태 43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및 매장임차인 7600여 곳, 대리점분야는 식음료·화장품 등 22개 업종의 공급업자(회사) 521곳과 이들 거래하는 대리점 5만 곳 등 총 5만 700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조사에서는 갑을 간의 실질적 협상력 격차와 구조적 종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갑을관계의 거래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력 격차에 대해 파악·분석하기 위해 거래선 다변화 정도 및 거래 집중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납품업체·대리점 등을 (乙)측 사업자의 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거래개선 정도를 함께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 집중도는 현재 거래 중인 대기업 수와 상위 3개사에 대한 거래금액 비중 등을 통해 파악된다. 을의 마진율과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수치화해 갑질의 구조적 환경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통분야 조사에서는 메서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던 '온라인 쇼핑몰'이 핵심 타깃이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특유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납품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경험하거나 인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살이 확인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환경산업기술원 폐수소차 핵심부품 순환자원으로 재활용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폐수소차의 핵심 부품을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폐수소자동차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어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구동모터 등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408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잔류수소 안전 제거 및 핵심부품 해체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 재사용 발전시스템 개발 ▲폐구동모터 영구자석 회수 및 친환경 고순도 희토류 소재화 등 3대 분야의 기술 개발에 나선다.

우선 수소저장용기에 남아 있는 잔류수소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수소자동차에 장착된 연료전지 스택, 수소저장용기, 구동모터 등 주요 핵심부품의 재사용·재활용 가능 여부 등 상태 확인을 위한 성능평가 기술을 개발한다.

수명이 남은 연료전지 스택과 수소저장용기의 경우, 건설현장·도서지역·선박 등에서 전기 발전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군 장병 사회복귀 기술교육 확대

한국폴리텍대 전·현직 장병 지원
제대군인 재취업 성공 사례 주목
취업맞춤특기병 프로그램 운영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전·현직 군 장병들의 사회 복귀와 역량 강화를 돕는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교육 지원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8일 폴리텍대학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으로 25년간 나라를 지켰던 조승길(48)씨는 제대 후 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에 입학해 자동차 제어비사로 제2의 인생'에 성공했다. 군 생활만 해온 그에게 처음 접하는 전기·전자·소프트웨어 이론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폴리텍대학의 강점인 실제 차량과 장비를 다루는 철저한 실습 중심 수업이 돌파구가 됐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조씨는 자동차 관련 자격증 4종을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고, 현재는 르노코리아 강릉 정비사업소에서 담당차량 정비사로 제2의 서막을 열었다.

조 씨는 "새로운 시작은 두렵지만, 배움의 즐거움을 선택한다면 충분히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자동차정비 기능장 취득을 목표로 다음 도전을 준비 중이다.

폴리텍대학은 대학이 보유한 최신 장비와 고도화된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꿈드림공작소'를 통해 현역 장병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성남캠퍼스는 지난 2024년부터 국방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전역예정 장병들이 자동차 장치 제어 및 반도체 공정 직업 교육 체험을 하고 있다. /폴리텍대학

직교육원과 손잡고 '취업맞춤특기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장병들이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군 내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4년 첫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분기별 1회씩 총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역시 지난 3월 40명이 교육을 마친 데 이어 이달(6월)에도 50명의 장병이 교육을 앞두고 있다.

춘천캠퍼스는 지난 4월 중순 제13기계화보병여단과 협업해 장교 및 부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 운용 심화과정'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군부대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양 기관은 추가 일정을 협의해 하반기에도 확대 교육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중소농 스마트팜 2000곳으로 확대

농정대전환 맞춰 43개 과제 추진
계절근로 5039명 공급 예정

농협이 중소농 대상의 스마트팜 보급을 늘리고 한우뿌리농가 육성에 나선다. 이 같은 핵심 사업에 매진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조성 및 농촌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정부의 '농정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43개 농정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과제는 ▲중소농 중심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이동장터 ▲한우뿌리농가 육성 등이다. 농촌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둔다.

우선 스마트농업 분야에서는 중소농 중심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 지난해 1600개소에서 올해 2000여 개소로 확

대해 보급한다. 또 현장 중심의 스마트팜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힘쓴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경우, 운영농협 142개소를 확정해 올해 5039명의 인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2030년까지 운영농협을 200개소로 확대한다.

지난 3월에는 창업농지원센터에서 '2026년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이어 한국농수산대학과 공동으로 '농산업 밸류체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가책임형 농정 강화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한우뿌리농가 육성사업 참여 축협 96개소와 농가 8526호를 확정했다. 이를 통해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 및 농가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보이지 않는 보호, 피부는 더 편안해진다.

보호를 넘어, 피부를 위한 케어
샬롯 루시드

자외선 차단과 피부 보습 케어를
동시에 담은 UV 차단 투명 패치

- # 눈밑부터 광대까지 완벽 커버
- # 숨 쉬는 통기성 나노 원단
- # 접착제 없이 밀착되는 수분 기반 패치
- # UV-A 98% / UV-B 99% 차단
- # 0.05mm 초슬림 투명 패치
- # 無계면활성제로 안심 사용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솔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광주·전남, 오늘 당선인 사전간담회… 통합의회 막바지 준비

통합특별시의회 운영방향 논의
청사 배치·원 구성 등 이목집중
내달 1일 개원… “안정적 출범 만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내달 1일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 사전간담회를 예고하는 등 통합의회 출범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 의회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남 영암의 한 호텔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사전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에는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대 통합특별시의원 91명을 비롯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사무처·광주·전남·전남교육청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초대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들이 주요 현안과 행정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첫 공식 논의의 장으로, 당선인 상견례를 시작으로 통합의회 운영에 필요한 의회 자치법규, 주요 현안, 행정 준비 상황 등이 논의된다.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전경

양 의회사무처는 통합의회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설명하고 집행부와 교육청도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필수 조례와 행정 준비 상황을 보고한다.

당선인들은 당일 오후 2시 50분부터 별도 의원 간담회를 열어 초대 통합의회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의회 주청사 위치, 상임위원회 배분, 상임위원 구성 방식, 의원 사무실 배치 등 출범 초기 의회 운영의 뼈대를 결정할 핵심 사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청사 문제다. 의회 청사 배치는 집행부 주청사 문제와 맞

물려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의 상징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초대 통합특별시의회 원 구성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회 운영 주도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당선인 간 조율이 불가피하다. 특히 6·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91석 중 83석, 91.2%를 차지하면서 원 구성 논의에서도 민주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등 소수 정당의 참여 폭을 어떻게 보장할 지도 초대 의회의 협치 수준을 가늠할 변수로 꼽힌다.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선거는 모두 70개 선거구에서 치러졌다. 의원 정수는 지역구 79명과 비례대표 12명 등 모두 91명이다.

선거 결과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79석 중 75석을 차지했고, 진보당은 4석을 얻었다. 비례대표 12석은 민주당 8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 진보당 1석으로 배분됐다. 당선인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통합의회 출범에 따른 쟁점과 과제를 공유하고 초대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내달 1일 개원과 함께 첫 임시회를 열고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시·도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선인들에게 각종 의회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통합의회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디지털대전환 포럼’ 개최

부산시는 9일 오후 1시 해운대구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에서 ‘디지털대전환(DX·AX)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업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로 연결하는 방안을 주제로 ▲문서 데이터의 자산화 ▲물리적 환경의 데이터 연결 ▲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 ▲업무 데이터 혁신과 대응 ▲정부 데이터 활용 지원 등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빅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대전환에 관심 있는 시민과 기업 관계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전주시, ‘전주 심야극장’ 운영

전북 전주시는 11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밤 전주한옥마을에서 영화와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 ‘전주 심야극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한옥마을을 트래디셔널에서 열리는 전주 심야극장은 캠핑장 컨셉으로 꾸며진 한옥 공간에서 영화 관람과 미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시는 매일 영화의 배경과 분위기, 스토리에 맞춘 음식 메뉴를 구성해 영화와 미식을 결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경산문화관광재단

27일 ‘경산 카페 축제’ 개막

경산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경산 남천 둔치와 지역 카페 20곳에서 ‘2026 경산 카페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지역 카페와 경산 특산물인 신비복숭아를 연계해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선보이는 행사로 마련된다. 행사장에서는 신비복숭아 직판장과 시식 코너도 함께 운영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선다.

조현일 경산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경산의 매력을 담은 카페 축제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산(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안동시·김해시, 교류사업 본격 추진

20일 첫 교류공연 ‘당신이 좋아’

경북 안동시와 경남 김해시가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지난해 김해문화의전당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전문예술인 공연 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공연단체들이 타 지역 공연장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해 활동 영역을 넓히고 공연 유통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지역 예술단체는 상대 지역 공연장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새로운 관객층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 교류 공연은 20일 오후 5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에서 열린다. 김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극단 이루어가 음악극 ‘당신이 좋아’를 무대에 올린다.

‘당신이 좋아’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사랑, 이웃 간의 관계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일상 속 소소한 행복과 가족 이야기를 음악과 연극으로 풀어낸 음악극이다.

교류 사업 일환으로 안동 지역 공연단체도 김해 무대에 오른다. 극단안동은 10월 31일 오후 3시 김해문화의전당 누리홀에서 무장에 공연 ‘필진이 온다’를 선보일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연 교류를 넘어 문화예술 교육 분야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과 연계한 여름 합동캠프와 연말 합동 정기연주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동과 김해 지역 공연예술단체들이 보다 다양한 무대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시, BTS 공연주간 대규모 할인 행사

내일부터 ‘부산 빅세일 주간’ 운영

부산시는 오는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산 빅세일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연 관람객의 소비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는 10~16일까지 550개 소상공인 점포와 9개 대형유통업체가 참여하는 민간참여형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점포 이용 시 동백전 추가 캐시백 2%를 제공하며 자체 할인과 사은품 증정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해리단길과 전포사잇길, 부산대 상권, 부산진시장 등 주요 상권과 롯데백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도, ‘경북 관광페스타 in 서울’ 성료

경북도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26 경북 관광페스타 in 서울-경북으로 ON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 22개 시군의 축제와 관광자원을 수도권 시민과 관광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와 국악 공연이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행사장에는 각 시군 관광홍보관과 체험부스가 운영됐으며, 청송사과축제와 구미라면축제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신라 한복 입어보기, 한지 전통등 만들기, 전통주 테이스팅 클래스 등 체험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 출신 공연팀과 K-POP 커버댄스 무대도 마련돼 현장에 찾은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6 경북 관광페스타 in 서울-경북으로 ON나!’ 행사장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

특산물 시음·시식 행사에서는 안동 참마 보리빵, 영천 사인머스켓빵, 경주 찰보리빵 등 지역 먹거리가 소개됐으며, 특산물 경매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또 경주 APEC 정상회의 유치 성과를 알리는 POST-APEC 레거시 전시관과 신라금관 특별 전시, 각종 참여형 이벤트가 운영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부산시, 새마을운동 가치·공동체 정신 기려

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개최

부산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56주년과 제16회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는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근면·자조·협동을 기치로 출범한 지역 사회 개발 운동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새마을회가 주최·주관했다.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시민과 공유하고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넓히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백옥자 부산시새마을회장을 비롯해 새마을가족과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했고,

시 주요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연 뒤 기념식, 시민 참여 프로그램, 문화 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지역 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에 힘써 온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는 시상도 진행됐다. 공적이 두드러진 유공자에게는 부산시장 표창이 주어졌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다채로웠다. 백일장과 사생대회, 오행시 행사가 마련됐고, 청년새마을회원들의 플래시몹 공연과 ‘어울림 골든벨’, ‘세대 공감 콘서트’ 등 남녀노소가 어울리는 무대가 펼쳐졌다.

/부산=이도식 기자

이른 무더위에 유통가 분주... 먹거리·가전 등 부담 줄인다

SSG닷컴 일주일간 장보기 할인전
홈플러스 계절상품 중심 할인혜택
세븐일레븐 여름 한정푸드 선봬
롯데하이마트 하이лай트 세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유통업체가 예년보다 빠르게 여름철 수요 잡기에 나섰다. 기상청이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대형마트와 편의점, 가전·가구 업체는 신선식품부터 냉방 가전,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를 기획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돌입했다.

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주요 유통업체들은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여름 마케팅에 돌입하고, 신선식품·보양식·냉방가전·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확대하고 있다.

SSG닷컴은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여름철 먹거리와 생활품을 특가에 선보이는 장보기 할인전을 진행한다. 수박 4종과 이색 품종 수박을 포함한 여름 제철 신선



홈플러스 모델이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 강서점에서 '쿨 썸머' 행사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

식품을 최대 50% 할인하며, 인기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1+1 또는 다중 구매 할인 혜택으로 판매한다. 11일부터는 최대 1만 원의 장바구니 쿠폰을 제공하는 물렛 이벤트도 매일 진행해 가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홈플러스 역시 오는 10일까지 '쿨 썸머' 행사를 열고 물놀이용품, 냉방 침구, 선풍기 등 계절 상품을 중심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체 브랜드(PB) 냉면과 간편 수산물 등 먹거리 상품도 강화했으며, 베이커리 브랜드 '몽 블랑제' 주요 제

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홈플러스 측은 이른 더위에 맞춰 고객들이 여름 필수 상품을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는 1인 가구 증가와 제철 상품 소비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여름 먹거리와 기후변화 대응 상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세븐일레븐은 하절기 먹거리 출시 시점을 전년 대비 1개월가량 앞당겨 오는 10일부터 '중가열무비빔밥', '냉매일 소비&유부초밥' 등 여름 한정 푸드를 선보인다. 초복을 한 달 이상 남겨둔 시점에



롯데하이마트가 6월 한달간 '올여름 가장 시원한 혜택, 하이лай트 세일'을 진행한다. /롯데하이마트

서 하림과 협업한 '세븐셀렉트 영양반계탕'을 출시해 복날 수요 선점에 나섰다. 미쉐린 1스타 셰프와 협업한 들깨수제비 및 제철 과일도 함께 판매한다.

GS25는 최근 번덕스러운 날씨로 수요가 급증한 우양산을 전략상품으로 육성한다. 지난해 우양산 매출이 전년 대비 351% 신장한 데 이어 올해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자, 자외선 차단과 방수 기능을 갖춘 '암막 우양산' 2종을 오는 출시했다. 기존 40대 이상 여성 중심에서 2030 세대와 남성으로 확산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우

양산 전용 매대도 운영할 예정이다.

가전과 침구업계는 잘게 쪼개진 냉방 수요와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을 공략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6월 한달간 '하이라이트 세일'을 통해 냉방 가전을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며, 에어컨 구매 시 청소 서비스를 최대 50% 할인하는 동사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자체 브랜드 라인 '물탄다드'를 통해 탁상용, 클럽형, 냉각 휴대용 등 공간과 동선에 맞춘 선풍기 6종을 새로 출시해 제품군을 넓혔다. 에이스 침대와 SK스토아 등 침구 업체도 5월부터 매출이 급증한 냉감 패드와 바다필로우 등 수면 수요를 겨냥해 관련 상품 세일과 물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여름 상품 경쟁은 누가 더 빨리 할인하느냐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더위를 느끼는 순간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에어컨, 선풍기, 침구처럼 품목은 달라도 결국 승부처는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의 불편을 줄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metroseoul.co.kr



식품, 통합배송 서비스 각광... 이용자 수·거래액 급증

CJ프레시웨이 풀필먼트 기반 운영
식자재 입고 업무 효율성 개선 주요

국내 식자재 오픈마켓 식품이 여러 판매사의 상품을 한 번에 주문하고 다음날 일괄 배송받을 수 있는 통합배송 서비스를 앞세워 외식 사업자들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용자 수와 거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온라인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마켓보로는 자사가 운영하는 B2B 식자재 오픈마켓 '식품'의 통합배송 이용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기간 관련 거래액은 3.3배 늘었다. 주문부터 수령까지 과정을 간소화한 원스톱 물류 서비스가 외식 사업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 통합배송은 여러 판매사의 상품을 하나로 묶어 다음날 한 번에 배송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외식 사업자가 신선식



식자재 오픈마켓 '식품' 이용 화면. /CJ프레시웨이

품, 가공식품, 소모품 등을 각각 다른 거래처에 주문하고 배송 일정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했지만, 통합배송을 이용하면 한 번의 주문과 한 번의 수령으로 식자재 발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CJ프레시웨이의 전국 23개 물류 거점과 쿨드체인 시스템을 활용한 풀필먼트 기반으로 운영되며, 주문한 상품은 판매사별로 물류 거점에 집결된 뒤 다음날 오

전 일괄 배송된다. 냉장·냉동 상품도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사업장 내 보관 설비까지 안전하게 입고된다.

통합배송 수요는 신선식품 사용 비중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브사브 전문점과 앙식 레스토랑 등 다양한 식재료를 취급하는 업종에서 이용이 활발하다. 상품별 주문처와 배송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식자재 입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경기 평택시에서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는 한 외식 사업자는 "통합배송을 이용하면서 여러 건으로 나눠 받던 식자재를 한 번에 수령할 수 있게 됐다"며 "냉장·냉동 상품도 안전하게 배송되고 주문 과정도 간편해 발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통합배송은 식품 제조사와 유통사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체 물류망이 없는 판매사도 전국 외식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식품은 앞으로 CJ프레시웨이와의 물류 협력을 강화해 통합배송 대상 품목과 입점 판매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식자재 유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판매사와 외식 사업자가 모두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성민 마켓보로 대표는 "외식 사업자에게는 간편하고 안전한 식자재 구매 환경을, 판매사에게는 물류 부담 없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며 "식품의 플랫폼 기술과 CJ프레시웨이의 물류 역량을 결합해 식자재 거래 효율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제품



코카콜라 한정판 패키지. /한국 코카-콜라

한국 코카-콜라 코카-콜라 월드컵 한정판

한국 코카-콜라사는 'FIFA 월드컵의 모든 순간, 코카-콜라와 함께' 캠페인의 일환으로 '코카-콜라 26 FIFA 월드컵 출전국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 패키지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독일, 미국 등 8개 출전국을 주제로 제작됐다. 각 국가를 상징하는 색상과 요소를 디자인에 반영했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FIFA 월드컵 에디션 플라베어 응원단 키링과 스트링백 등을 증정하며, 일부 제휴 채널에서는 FIFA 월드컵 공식 매치볼 키트도 경품으로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CJ온스타일, 럭셔리뷰티관 브랜드 매출 경총

전년대비 매출 43% 증가

CJ온스타일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바일 앱 내 럭셔리뷰티관 매출을 분석한 결과, 백화점 입점 뷰티 브랜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럭셔리뷰티관에는 에르메스퍼퓸, 시슬리, 글레드뽀보메, 메종마르자얌라 프래그런스, 로라메르시예, 나스, 데코르테 등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올해 3분기에는 아쿠아디 파르마와 크리드 등 니치 향수 브랜드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CJ온스타일은 수입사와의 협업을 통한 상품 신뢰도 확보, 전문관 중심의 큐레이션, 라이브 커머스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로 프리미엄 뷰티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입점 브랜드들의 성장세도 나타났다. 올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SK-II, 데코르테, 르네휘테르는 방송 진행 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에르메스는 지난 5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년 동월 대비 218%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시슬리와 글레드뽀보메 역시 모바일 라이브 방송 콘텐츠를 진행한 달의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5배, 3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뷰티 크리에이터 채널과의 협업도 성과를 냈다. 프리미엄 데마 브랜드 르누베르는 라이브 방송 론칭 40분 만에 30여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같은 방송에서 판매된 고주파 뷰티 디바이스 역시 준비 물량이 모두 판매됐다. /김서현 기자

롯데쇼핑, 14일간 '자이언츠데이' 쇼핑행사

1주차 패션·뷰티 카테고리 중심 할인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쇼핑 행사 '2026 자이언츠데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3월 롯데온이 롯데 자이언츠 공식 브랜드관을 연 이후 처음 선보이는 대규모 쇼핑 축제다. 롯데자이언츠를 비롯해 롯데GRS,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롯데호텔, 롯데시네마 등 롯데 계열사가 참여한다.

1주차인 8일부터 14일까지는 패션·뷰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행사가 열린다. 행사 기간 최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여름철 수요가 높은 의류, 스포츠웨어, 뷰티 상품을 선보인다.

참여 브랜드는 나이키, 스포티앤리치,

캘빈클라인, 램, 디스커버리, 리코스테, 렉카슈에프, 에스쁘아 등이다.

한정 수량 특가 코너인 '오늘의 홈런왕'도 운영한다. 크리크피크립도넛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더즌, 리우드 브리 유아샌들, 아워홈 가라야게, 마리끌레르 로고 반팔티, 푸마 얼티밋핏 드라이셀 노와이어 세트, 매일 그릭요거트, 파르페 by 알레르망 사베트 외플 냉감 흡이불 등이 대표 상품으로 마련된다.

고객 참여형 이벤트인 '롯데 올스타 라인업'도 진행한다. 롯데 계열사 관련 인증 사진을 남기거나 댓글을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롯데웰푸드, 롯데GRS, 롯데호텔, 코리아세븐, 롯데시네마 등의 상품을 증정한다.

/김서현 기자

/신원선 기자

인벤티지랩, 위고비·마운자로 추적 요요현상 줄어든 비만치료제 ‘주목’

美서 ‘IVL3021·3024’ 성과 발표
1회 투여, 우수한 체중감소 효과
장기적 체중감소 유지 전략 확인

인벤티지랩이 개발한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세미글루타이드를 월 1회 투여한 결과, 매일 맞아야 하는 위고비 보다 체중 감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사 중단 후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요요 현상이 줄어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제84회 미국당뇨병학회(ADA 2026)에서 장기지속형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IVL3021’ 및 ‘IVL3024’의 연구 성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순한 장기지속 기술 구현을 넘어, 약물 노출도와 비만 개선 효과 간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정량적 데이터로 입증했다는 점이다.

세미글루타이드 기반 월 1회 장기지속형 주사제(LAI)인 IVL3021은 고지방식이(DIO) 비만 랫드 모델 평가에서 용량 의존적인 체중 감소 효과를 명확히 입증했다. 특히 연구 결과, 월 1회 투여만으로 체중 감소 효과가 지속되었으며, 위고비

반복 투여군 대비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체성분 분석 및 조직병리 평가 결과, IVL3021 투여군에서는 지방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했으며 지방세포 크기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혈중 간수치 및 중성지방 수치 개선도 함께 확인돼 지방 간 및 지질대사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목할 점은 장기 유지 치료의 가능성이다. 비만 치료제는 투여를 중단하면 즉시 감소된 체중의 50% 이상이 다시 증가되는 요요 현상이 보고되어 있으며 따라서 체중 감소를 유지하는 치료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고비 투여 후 IVL3021로 전환하는 치료 전략을 적용하였고 IVL3021 전환군에서 체중 감소가 시험 종료까지 효과적으로 감소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만치료제의 장기적인 체중 감소 유지 전략으로서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함께 공개된 차세대 파이프라인 ‘IVL3024(티르제파타이드 기반)’의 미니피그 약동학(PK) 평가 데이터도 주목받았다. IVL3024는 단회 피하 투여 후 2개월의 평가 기간 동안 초기 방출없이 지속적인

고 안정적인 약물 노출을 유지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IVL3024가 차세대 GLP-1/GIP 이중 작용제 기반의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도약할 충분한 기술적 경쟁력을 갖췄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의 기반이 된 ‘IVL-드러그플루이딕(DrugFluidic)’ 플랫폼은 50% 이내의 펩타이드 약물 탑재 및 90% 이상의 우수한 약물 방출을 균일한 입자 크기 분포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마이크로플루이딕스 핵심 기술이다.

인벤티지랩 관계자는 “이번 ADA에서 공개된 데이터는 당시의 플랫폼 기술이 실제 비만 치료 효과와 유지요법의 임상적 수요를 완벽히 충족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세미글루타이드 장기지속형 주사제 임상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다중 타겟 GLP-1 및 아말린 기반의 비만 치료제들에 대한 장기지속형 연구 개발을 위한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위해서 바로 이어지는 BIO US 2026에서 예정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사업화 논의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metro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이사(가운데)와 관계자들이 지난 5일 미국 뉴저지 소재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에서 열린 ‘SK Life Science LinX’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SK바이오팜, K-바이오 美 진출·성장 지원

美에 ‘SK 라이프사이언스 링스’ 개소

SK바이오팜은 지난 5일 국내 유망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현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공간 ‘SK 라이프사이언스 링스(LinX)’를 미국 뉴저지 소재 자회사인 ‘SK 라이프사이언스’ 내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LinX는 총 160평 규모로 공용 공간 120평, 개별 집무실 10개, 회의실 등 현지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아시아(East)의 우수한 연구개발(R&D) 역량과 북미(West)의 선진 시장 및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K-바이오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가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명칭의 ‘X’는 교류(eXchange)·확장(eXpansion)·기회 발굴(eXploration)을 상징한다.

LinX에서는 KOTRA가 주도하는 바

이오 분야 협력 컨소시엄의 ‘K-바이오 글로벌 이노베이션 링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림대학교가 운영하는 지역 창업 브랜드 스테이션(Station)C가 참여를 확정했으며, 타 국내 기관과도 참여를 논의 중이다. 컨소시엄은 현지 정착 지원, 법률·특허 자문, 현지 투자자 연결 등 미국 진출 초기 안착을 위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LinX 개소는 K-바이오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그간 SK바이오팜이 강조해 온 ESG 철학을 미국 현지에서 직접 실현하는 글로벌 상생 사례로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 컨소시엄 주관사인KOTRA 등과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적극 알리는 한편, 오는 6월 중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바이오학과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공식적인 입주 사 모집을 시작한다.

/이세경 기자

LG생활건강 ‘CNP’, 콘텐츠로 동남아 공략

베트남 인플루언서 톤 팜 초청
CNP 브랜드 행사… K더마 입지 다져

LG생활건강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CNP’가 디지털 콘텐츠 기반 협업을 강화하며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LG생활건강은 최근 베트남 인플루언서 톤 팜을 초청해 CNP 브랜드 행사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톤 팜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 틱톡에서 약 4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크리에이터다.

이번 방한에서 톤 팜은 LG생활건강 본사, LG사이언스파크 연구소, 뷰티 편집샵, 피부과의원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K더마 제품과 기술을 체험하는 데 중점을

뒀다. 톤 팜은 해당 일정 동안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 계정에서 직접 촬영한 게시물을 공유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글로벌 팬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K뷰티를 알렸다. CNP는 현지 소비자와 접점을 늘리며 브랜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후, 피부 특성 등을 적극 반영한 제품군을 구축해 고효능 고급 K더마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앞서 톤 팜과 함께 선보인 ‘프로폴리스 트리트먼트 앰플 에센스’도 브랜드 주력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CNP의 올해 1분기 베트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했다.

/이청하 기자

그라비티, 카이스트 기술 더한 ‘K-삼푸’ 선봬

폴리페놀팩토리 ‘신원료 기술 발표회’
해양 PDRN 유효성분 ‘잔류기술’ 구현
카이스트 ‘코아세르베이트’ 제형 개발

과학 혁신 기반 스타트업 폴리페놀팩토리가 세계 최초로 삼푸 시장에서 해양 미세조류를 활용한 ‘비건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상용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뷰티 시장에 K뷰티테크를 확산한다.

폴리페놀팩토리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원료 기술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해양 미세조류 유래 PDRN 상용화의 핵심은 유효 성분이 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만드는 ‘잔류 기술’의 구현이다.

PDRN은 항염증, 성장인자 분비 촉진 등을 유도하는 재생 원료다. 다만 수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삼푸 등 세정제에 넣으면 물에 쉽게 씻겨 두피와 모발에 흡수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폴리페놀팩토리를 창업한 카이스트 화학과 이혜신 석좌교수는 ‘코아세르베이트’ 제형을 개발했다.

코아세르베이트는 삼푸를 행구릴 때 PDRN 성분은 두피 표면, 모공, 모발에 남아 작용하는 고기능성 제품을 설계하는데 쓰인다. 수용성이지만 물에 씻겨나가지 않도록 ‘PDRN과 폴리페놀 융합 기술’이 집약됐다. 폴리페놀이 PDRN 전달체 역할을 하는 복합 구조를 갖췄다. 실제로 폴리페놀은 천연 항산화 성분이며 분자 구조상 주변 물질과 강력하게 결합하는 성질을 지녀 천연 접착제로 알려졌다.

해양 PDRN이라는 원료 확보에도 독자 기술이 반영됐다. 오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주 바다에서 채집한 미세조류



이혜신 폴리페놀팩토리 대표(왼쪽)와 정성진 책임 연구원(오른쪽)이 해양 미세조류 유래 PDRN을 설명하고 있다. /폴리페놀팩토리

를 단일 균주 형태로 순수 배양하는 공정을 완성했다. 그 결과, 이 해양 PDRN과 불순물의 흡수 파장 비율을 뜻하는 흡광도 측정에서 1.97이라는 기록이 확인됐다. 2에 가까울수록 고순도다.

이 교수는 “흡광계 수치뿐 아니라 효능 검증에서도 해양 PDRN의 상처 치유 촉진 능력이 연어 대비 약 60% 더 우수했다(100ppm 농도 기준)”고 설명했다.

폴리페놀팩토리는 원천 기술과 원료를 바탕으로 K뷰티 사업 기반도 다진다.

기능성 헤어케어 브랜드로 ‘그라비티’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24년 4월 국내 공식 출시 후, 미국 최대 온라인몰 아마존, 일본 대표 온라인채널 라쿠텐, 일본 뷰티매장 리메이크, 대만 모모홈쇼핑 등에 입점해왔다. 올해 들어 프랑스쁘랭팡 백화점을 통해 유럽으로도 진출했다.

폴리페놀팩토리 최성식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그라비티 신제품 ‘PDRN 헤어 리카버리 삼푸’는 초도 물량 4만 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0만 개 생산, 3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매출의 7.5% 수준을 차

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총 매출 목표는 약 4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 현장에는 국내외 산업계도 함께해 국산 기술 상업화와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폴리페놀팩토리는 지속 가능한 기술과 원료가 기업에 부담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이정표라며 산업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대만 포모그룹의 박동섭 포모사코리아 대표는 “그라비티는 이미 대만 현지에서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얻고 있다”며 “K뷰티 기술과 세계적 유통망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은 “기존 가성비 중심의 K뷰티 시장에 압도적 기술을 가진 벤처가 합류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폴리페놀팩토리는 지난 2023년 카이스트 교원 창업으로 설립됐고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젊은 연구진으로 구성됐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아모레퍼시픽, ‘아모레몰’ 여름 할인행사

‘서머 아모레 세일 페스타’ 진행

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 채널에서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3일까지 자사 공식 온라인몰 아모레몰에서 ‘2026 서머 아모레 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짜릿한 여름 이야기’를 주제로 꾸며진다. 75종의 기획 상품과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 마리오 갤럭시와 협업한 굿즈를 선보인다. 슈퍼마리오 자동 우산, 요시 보냉백, 캠핑 의자, 키링 등 3종 구성은 한정판으로 내놓는다.

다양한 참여형 행사도 전개한다. 매일 아모레몰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10초 랜덤박스’, 라이브 방송을 통한 ‘릴레이 브랜드 데이’, 친구를 추천하고 함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페스타 소개 미션’ 등이 이어진다.



‘2026 서머 아모레 세일 페스타’ 전용 굿즈 3종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이커머스 부문 김경연 부사장은 “아모레 세일 페스타는 연 2회만 진행되는 아모레몰 대표 행사로 매해 새로운 굿즈와 볼거리, 이벤트를 준비해왔다”며 “아모레 세일 페스타가 특별한 쇼핑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K푸드, 세계인의 먹거리

글로벌 시장의 확장 and 현지화 전략

2026년 6월 17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 행사명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 주제 K푸드, 세계인의 먹거리: 글로벌 시장의 확장 and 현지화 전략
 - 일시 2026년 6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등록 사전 등록시 무료(100명 선착순, 현장등록 11만원)
 - 문의 2026 푸드이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강연	14:10 ~ 14:40	박수영 해양수산부 수출공진흥과 사무관 : 2026 수산식품 수출전략
	14:40 ~ 15:10	강호주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장 :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15:10 ~ 15:40	정찬기 대상 글로벌김치마케팅팀장
	15:40 ~ 16:10	윤명량 풀무원 글로벌마케팅 총괄본부장
	16:10 ~ 16:40	안병의 식신 대표 : 식신 데이터로 본 '외국인이 실제로 찾는 K푸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N서울타워 '2026 글로벌 나이트 워크' 첫 회 매진
CJ푸드빌이 운영하는 N서울타워가 오는 13일 처음 선보이는 야간 체험형 행사 '2026 글로벌 나이트 워크'가 첫 회차 티켓 전량 매진을 기록하며 흥행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23년 진행된 '2023 N서울타워 남산 나이트워크' 모습. /CJ푸드빌



마사회, 과천 포니랜드서 '탄소흡수식물 심기'
한국마사회가 탄소감축 기여활동에 나섰다.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경기 과천 포니랜드 일대에서 탄소저감 식물식재 캠페인 '심어서 감탄해'를 개최했다. 우희중 한국마사회장이 과천 포니랜드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탄소흡수식물 케나프를 심고 있다. /마사회



웅진씽크빅, 군포시 '그림책꿈마루' 위탁 운영
웅진씽크빅이 경기 군포시와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본격 운영에 나선다. 8일 웅진씽크빅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군포시 한얼공원 내에 개관한 그림책꿈마루는 전시·체험·도서관·아카이브 기능이 결합된 그림책 기반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이다. /웅진씽크빅



삼양식품, '탱글 시리즈' 우수 미각상 쾌거
삼양식품은 '탱글 갈릭쉬림프 프로틴파스타', '탱글 바질 토마토 프로틴파스타', '탱글 갈릭오일파스타' 등 탱글 브랜드 3종과 '삼양1963'이 '2026 국제식품포평회(International Taste Institute)'에서 '우수 미각상(Superior Taste Award)'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미지는 탱글 브랜드 제품. /삼양식품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150주년 선박 5척 공개**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부산항 선박 공개·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달 19~20일 이틀간 부산항만공사 사육과 부산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일대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국립부경대, 부산해양경찰서,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평소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선박 5척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개한다. 또 제19회 부산항축제에도 연계해 공동 홍보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현대차, 월드컵 마케팅 시동... 180개국 축구팬 공략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 캠페인
손흥민 선수·로봇 아틀라스 출격**

현대자동차가 FIFA 월드컵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진행,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현대차는 FIFA 월드컵 2026을 맞아 브랜드 월드컵 캠페인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를 본격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대차는 로보틱스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달하는 후원 활동부터 대표 팬 참여 이벤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현대차는 이달 초 '미래(Next)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메인 영상을 공개했다.



현대자동차 FIFA 월드컵 2026™ 대회 공식 차량 지원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이번 영상은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라는 브랜드 비전 아래 제작됐다. 차세대 축구 유망주들의 도전과 현대차 모빌리티 혁신이 만들어갈 미래가 글로벌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담아냈다. 또 현대차 브랜드 글로벌 앰배서더인 손흥민 선수가 성장 세대에 영감을

을 주는 레전드로 등장해 유소년 선수들에게 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를 더했다. 보스턴디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함께 등장해 현대차가 제시하는 모로보틱스 기술 비전을 상징적으로 선보였다. 현대차는 TV와 디지털, 소셜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 세계 180

여 개국의 축구팬들에게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의 핵심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FIFA 월드컵 2026을 맞아 차세대 축구 인재들의 가능성과 미래 모빌리티, 로보틱스 기술이 만들어갈 다음을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라는 브랜드 경험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월드컵 개막에 맞춰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 공식 차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1999년부터 27년간 FIFA의 공식 모빌리티 파트너십을 이어온 현대차는 이번 대회에 994대의 승용차와 506대의 버스 등 총 1500여 대 규모의 차량 지원에 나선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정용진,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내정

(신세계그룹 회장)
이마트와 각자대표로 내정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이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로 맡으며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신세계그룹은 8일 정 회장을 신세계프라퍼티 각자대표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사회를 열어 정 회장을 등기이사로 추천한 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사회에서 각자대표로 선임하면 최종 취임하게 된다. 이마트는 올해 정기 임원인사에서 정 회장을 각자대표로 내정했으며, 내년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정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은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고 미래 성장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

다. 정 회장은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의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정 회장은 AG글로벌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이어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룹 핵심 사업인 유통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사업 추진을 동시에 이끌게 됐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청라 개발과 AI 데이터센터 사업 추진 등 주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정 회장은 중장기 비전과 사업 전략을 총괄하며, 신세계프라퍼티 각자대표로 내정된 이형전 전 개발본부장은 현안 사업과 조직 운영을 맡게 된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어워즈 대상을 시상한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수상자인 정호석 롯데호텔앤리조트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 /롯데

'롯데 어워즈', 롯데호텔앤리조트 대상

'APEC 정상회의' 운영 성과 롯데가 8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2026 롯데 어워즈'를 개최하고 우수 성과를 거둔 임직원과 조직을 시상했다. 롯데 어워즈는 한 해 동안 고객가치 창출과 그룹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행사다. 이날 시상식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주요 경영진과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대상은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수상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만찬을 비롯한 주요 공식 행사의 의전과 케이터링 운영을 맡아 수행했다. 영업·마케팅 부문 최우수상은 협업 상품을 선보인 롯데GRS, 칸쵸 브랜드 성장을 이끈 롯데웰푸드, 친환경 플라스틱 TV 하우징 적용 성과를 낸 롯데첨단소재가 각각 수상했다. /김서현 기자

중진공, 윤리경영으로 청렴문화 정착

윤리·인권경영의 날 행사 개최



8일 중진공 진주 본사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인권경영의 날을 맞아 부패방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윤리·인권경영의 날을 맞아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중진공은 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상호존중 실천의지 확산을 위해 '윤리·인권경영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2014년부터 기관의 청렴 의식 강화 및 문화 확산 활동을 위해 매년 '윤리·인권경영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공직 윤리' 특강을 실시해 업무 전반의 AI 활용 확대에 따른 공공기관의 디지털 윤리 인식 제고에 나섰다. 이와 함께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청렴 이케이드' 등 임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임형 프로그램을 통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중진공은 고객을 직접 대하는 현장부서의 윤리·인권 의식을 제고하

기 위해 '권역별 윤리·인권경영의 날'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마주하는 윤리 딜레마 해소 및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청렴 북콘서트', '인권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청렴 및 인권존중 문화를 지역사회와 자회사 등 대내외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올해부터는 '윤리·인권경영의 날'을 매달 정례적으로 운영해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일상 속에 내재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윤리·인권 사연을 받아 해법을 나누는 '윤리·인권 팟캐스트', 현장 부서별 '청렴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이어 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빙그레,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후원

재난취약계층 9000만원 지원 빙그레는 후서기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9000만원을 후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적십자사는 전달받은 후원금으로 여름이불 2000개를 구

매해 재난취약계층에게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물품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광주·남양주, 충남 논산·공주·천안, 경남 김해 등 빙그레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달된다. 대한적십자사는 각 지역의 재난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도울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인사** ◆동행미디어 시대 △사회부장(부국장) 이재명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문화미디어산업실 콘텐츠미디어산업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최원석
◆IM증권 ◇상무 △리스크관리본부장 임명임 ◇상무부 △WM본부장 손창우 ◇부사장 △자본시장운용부장 배민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원장 조일연
◆KBS ◇부장급 △콘텐츠전략본부 아나운서실 아나운서부장 박노원 △콘텐츠

- 전략본부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장 박지현 △보도시사본부 보도국(취재1) 사회부장 이효연 △보도시사본부 보도국(취재1) 네트워크부장 박효인 △경영본부 수신로국 강남사업지사장 조남주 △경영본부 수신로국 인천사업지사장 오종우 △부산방송총국 보도국장 박선자
통일부 △한반도평화경청단장 김효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전보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김호은

AMERICCIINO

Original Espresso Cream Coffee



아메리치노 라떼
Americcino Latte



아메리치노
(오리지널 / 스위트)
Americcino (Original / Sweet)



투표용지 부족에 갇힌 참정권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거대한 오점을 남겼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주권을 행사하려 온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종이 몇 장이 모자라 투표를 못 했다는 상식 밖의 참사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무대다. 선관위의 부실한 준비와 안일함은 이 신성한 무대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참정권은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 위에 세워진 체제이며, 그 권력은 오직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정당성을 얻는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성스러운 권리를 강제로 박탈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반헌법적 사태다. 더군다나 유권자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배정받고도 50%만 인쇄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물리적 장벽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다. 기술의 발전으로 선거 행정이 낱알이 스마트해지고 자랑하던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인 물품 관리에 구멍을 낸 것은 참담한 역설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물량 부족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 목소리를 소중히 여겨야 할 국가 기관의 기본 태도와 철학이 부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상의 바쁜 시간을 쪼개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현장에서 황당함을 넘어 깊은 절망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민주 국가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행정 편의주의와 안일한 수요 예측 앞에 무력하게 꺾였기 때문이다.

한 표의 가치는 엄중하다. 그 한 표를 위

해 수많은 선조가 피와 땀을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해 왔다. 선관위는 그 역사의 무게를 망각한 채, 가장 기본적인 선거 물품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유권자들의 주권을 하공으로 날려버렸다.

선관위는 이번 참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철저한 원인 규명은 물론, 행정 마비에 가까운 무능을 보여준 관련 책임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문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지방선거 투표 하루 전인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 한 표가 오투이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투표개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위원장은 저 발표를 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지방선거 준비상황을 들여다보기는 했는지 묻고 싶다.

/정치부장 yhj@metroseoul.co.kr

'고점판독기' A씨의 월요일



기지 수첩
허 정 운
(자본시장부)

투자자 A씨는 8일 장 초, 자신의 주식 계좌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 8% 넘게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원·달러 환율은 1560원을 넘어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도 속절없이 밀려났다. 유명한 '인간 고점판독기'인 A씨의 계좌도 이 충격을 피해 가지 못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주식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기뻐해야 한다. 지금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슈가 됐지만, 계좌에 찍힌 파란 숫자까지 지워 주지는 못했다.

하루 만에 전체 수익률의 10%가 증발했다. 순간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라는 생

각이 스쳤지만 밀려드는 업무에 MTS 앱을 켰다.

불과 사나흘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지난 2일 코스피는 8800선을 돌파했고 시장은 '만스피'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열풍,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시장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8일 아침 시장이 마주한 풍경은 전혀 달랐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 넘게 급락했다.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며칠 전까지 낙관론을 이야기하던 시장은 이제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오래 지켜볼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시장은 언제나 자신을 설명할 '이유'를 찾아낸다는 점이다.

오늘 때는 더 오늘 이유를 찾고, 내릴 때는 더 내릴 이유를 찾는다. 코스피 9000 전망이 쏟아질 때는 위험이 잘 보이지 않고, 서킷브

레이커가 발동된 날에는 희망마저 사라진 듯 느껴진다. 금리와 환율, 외국인 수급, 중동 정세 모두 중요한 변수다. 앞으로 시장이 더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하루 만에 바뀐 것은 주가지지 기업의 경쟁력까지는 아니다. 브로드컴 주가가 급락했다고 해서 반도체 공장이 멈춘 것은 아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고 해서 인공지능(AI) 투자 수요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일수록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코스피가 몇 포인트인지, 환율이 얼마인지,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는지는 매일 바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투자자들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결국 기업의 실적과 경쟁력, 그리고 펀더멘털이다.

ps. A씨는 멀리 가지 않다. 나흘 전 '9000피' 기획 기사를 준비하다 오늘은 '검은 월요일' 발생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 본인이다.

/zelkova@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9일 (음 4월 2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는 없습니다. 60년생 내 고집보다는 주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72년생 너무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84년생 주위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49년생 노력이 빛을 보고 성공하게 됩니다. 61년생 처음은 어렵지만 갈수록 좋아 집니다. 73년생 거래나 소송은 미루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85년생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니 기쁘 하루입니다.



50년생 목표를 조금 낮추면 편해집니다. 62년생 마음에 갈등이 있으니 일이 더디겠습니다. 74년생 운이 좋으니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86년생 다투면 다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51년생 길함과 흉함이 교차하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63년생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75년생 어렵게 얻었으니 더욱 기쁩니다. 87년생 겸손해야 주위의 시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52년생 명예가 높아지는 하루입니다. 64년생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으니 기쁩니다. 76년생 원하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만 자만해선 안됩니다. 88년생 오랫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53년생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뀌니 새로운 것이 좋아 보입니다. 77년생 방향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89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 복이 있습니다.



54년생 너무 믿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년생 매매가 이루어지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78년생 준비 없는 시작은 금물입니다. 90년생 여행이나 외출보다는 집에서 쉬는 게 좋습니다.



55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67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는 게 이득입니다. 79년생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91년생 소신있게 추진하면 끝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6년생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68년생 주위가 합심하니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80년생 뜻하던 것들이 잘 이루어 집니다. 92년생 노력에 대한 과실이 매우 달콤합니다.



57년생 큰 일을 하려면 작은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6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지만 바라던 대로 이루어 집니다. 81년생 모든 것이 길하니 운이 좋습니다. 93년생 운도 환하고 마음도 환합니다.



58년생 별 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70년생 욕심만 줄이면 만사 형통입니다. 82년생 겸손하게 처신하고 내실을 다지는 게 좋습니다. 94년생 소신을 굽히지 말고 계속 추진하세요.



59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71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하니 써우지 말고 회개하세요. 83년생 일보다는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95년생 너무 큰 꿈보다는 현실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김상회의四季

부처님 오신 날에

대체휴일제도가 생기고 나니 올 석가탄신일은 연휴가 되었다. 성인의 탄생이 2600년을 지나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막론하고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는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반면에 석가탄신일은 1975년에야 소송을 거쳐 어렵게 얻어낸 결실이었는데 어찌 됐든 모두의 황금 휴일이 되었다. 대승불교 권인 우리나라는 음력 4월 초파일을 부처님 탄신으로 하고 있지만, 남방 불교국가들에서는 '-vesak'이라 하여 음력 4월 15일에 부처님 탄생 일과 성도일, 열반일을 한 번에 기념한다. 따라서 상좌부 전통의 남방 불교국가들은 한 달 내내 축제와 다름이 없다고 한다. 고대 인도의 사키족 왕족 집안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그분은 싯타르타 고타마였던 세간의 이름을 뒤로 한 채 29세의 나이에 출가를 했다. 고행과 수행으로 절멸된 그의 삶의 궤적은 이천 육백년이 지난 지금도 피폐하고 상처받은 인간들에게 희망의 빛을 준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娑婆世界)라고 부른다. 탐진치로 버무려져 악하고 탁한 세계라는 뜻이다. 행복을 추구할수록 그 행복은 잠시뿐인 더 큰 고통을 낳길 뿐이다. 요즘 '모자부사', 즉 우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중생살이가 역시 그러한 것이다. 석가모니는 모두를 끌어안는 차유는 '자비회사'임을 설교하였다. 깨달아서 해탈 열반은 할 때 하더라도 중생의 이름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게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우리는 그를 칭송한다. 석가모니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외쳤다 한다. 일종의 비유겠지만 이 외침은 내가 하늘 아래 혼자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하늘 아래에서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임을 일러는 말씀이다.

'김상회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빌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퍼즐과정을 추가했어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9		3			8
			6			9		
	5			1	8			
8		4		9			2	6
		5	4		1	8		
9	3			2		6		1
			8	4			6	
		7			6			
5			2		9			7

7	1	3	6				4	9
3		9			1			
	6				7	9		
1				3				
4			7	2				1
					5			9
			2	5				1
			4			5		6
	2	7			6	1	8	4

7	8	1	9	6	8	2	1	9	9
9	2	9	8	2	7	1	8	6	
2	1	8	6	8	9	2	7	9	
6	7	2	8	9	1	9	8	9	
1	8	8	2	9	2	5	6	7	
9	9	2	7	8	6	8	2	1	
8	9	6	2	1	2	7	9	8	
2	2	9	1	7	8	6	9	8	
8	6	7	5	2	9	8	1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2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3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관심 낮은 교육감 선거... 유권자 68% “투표일 임박 결심”

교육감 선거 관심도 43%에 그쳐 언론·홍보물·주변 대화 영향 커 공약 중시 응답과 실제 선택 괴리 정책선거 정착 위한 보완책 필요



전국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교육대전환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현진 기자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 상당수가 투표 직전 후보를 결정하고, 후보 선택 과정에서는 언론 보도와 주변인 대화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 공약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꼽으면서도 실제 투표 행태는 막판 정보 노출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투표일 일주일 이내에 결정한 유권자 비율은 2022년 기준 68.2%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투표일 4~7일 전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이 27.6%로 가장 많았고, 투표일 1~3일 전 22.5%, 투표 당일 18.1% 순이었다. 반면 투표일 3주 이상 전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은 9.8%에 그쳤다.

이는 같은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선택한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수준이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투표일 3주 이상 전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이 27.0%로 교육감 선거의 약 3배에 달했다. 후보 선택에 가장 도움이 된 정보 획득

경로로는 언론 보도와 후보 홍보물, 가족·지인과의 대화가 꼽혔다.

조사에서 TV·신문 등 언론의 보도·기사를 꼽은 응답이 22.4%로 가장 많았으며, 후보자의 선거공보·별호·현수막 등 홍보물 22.3%, 가족·지인과의 대화 22.1%가 뒤를 이었다. 반면 TV 토론회와 방송 연설은 11.2%, 후보자의 인터넷·SNS 선거운동은 4.8%, 인터넷 커뮤니티는 3.2%에 그쳤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다른 지방선거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관심이 있었다는 응답은 43.1%로 광역단체장(74.1%), 기초단체장(71.3%), 지방의원(53.1%)보다 낮았다. 특히 교육감 선거 관심도는 2014년 46.7%, 2018년 43.6%, 2022년 43.1%로 선거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중앙선거위의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는 현재 2차 조사까지 발표된 상태다. 교육감 선거 관심도와 지지 후보

결정 시기, 정보 획득 경로 등은 선거 이후 실시되는 3차 조사에 포함된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1차 조사에서는 교육감 선택 시 고려 요소로 정책·공약이 33.2%를 차지했고, 도덕성이 28.5%로 뒤를 이었다.

다만 과거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결정이 투표 직전 시기에 집중됐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정책·공약 검증이 실제 후보 선택 과정으로 이어졌는지는 3차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의원은 “중앙선거위 유권자의 의식조사에서 낮은 관심도와 투표 임박 시점의 후보 결정 등 교육감 선거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선거 조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감 선거가 정책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전국소년체전서 금메달 87개 ‘전국 최다’

서울시교육청 선수단 40개 종목 1178명 참가 32개 종목서 메달 획득

서울시교육청 선수단이 제55회 전국소년체대회에서 금메달 87개를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부상 예방·도핑 방지 교육도 확대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87개, 은메달 63개, 동메달 77개 등 총 22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 대회보다 33개 늘어난 수치로, 서울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냈다. 올해 전국소년체

육대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등 56개 경기장에서 열렸으며, 서울시교육청 선수단은 40개 종목에 학생선수 904명과 임원 274명 등 총 1178명이 참가했다. 특히 수영·육상·체조 등 기초 종목에서 전체 메달의 45.8%인 104개를 획득했다. 수영(경영·다이빙) 종목에서는 전체 금메달의 38.8%에 해당하는 35개의 금메달을 차지하며 다관왕을 다수 배출했다. 전체 40개 종목 중 32개 종목에서 메달을 따냈고, 18개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신기록도 잇따랐다. 사격 남중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는 오산중·목동중·원촌중·거원중의 오지태·장승호·김종현·정승현 학생이 대회신기록을

수립했다. 수영 남초부 배영 100m(4학년 이하부)에서는 안주초 심태현 학생이 대회신기록을 작성했으며, 육상트랙 여중부 100m와 200m에서는 서울체중 왕서운 학생이 각각 대회신기록과 부별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또한 김예영·성채은·왕서운·최태연(이상 서울체중), 장민서·권재희(이상 안남중) 학생이 출전한 여중부 4x100m 계주에서는 부별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초 종목과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연계형 학교운동부 모델과 전임코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서울형 학교운동부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행주대첩 정신 담은 축제 마련

13~14일 행주산성 일대 공연·체험 프로그램 풍성

고양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축제인 제38회 고양행주문화제가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행주산성 역사공원과 행주산성 일대에서 개최된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의 승전 정신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고양행주문화제는 올해 ‘일상과 꿈을 이룰 썬기들, 행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행주문화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며 7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아름다운 한강 경관과 행주산성의 문화유산, 행주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행주대첩 투석전 전국 박터트리기 대회’는 올해도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집 시작 3일 만에 전 리그가 마감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밤이 되면 행주산성 일대 하늘은 화려한 빛의 향연으로 물든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행주 드론불꽃쇼’에서는 불꽃장치를 장착한 800여 대의 드론이 한강 수상불꽃놀이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한다.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아울러 체험마당에서는 신기전 만들기, 목판인쇄 체험, 연꽃무늬 부채 만들기, 도자 체험, 캐리커처와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런 예체능’ 클래스 확대 운영

12일부터 19일까지 참가자 모집

서울시가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예체능 진로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대학 교육 자원을 활용한 무료 실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한양대학교와 협력해 미술·연극·실용음악·K-POP 안무를 배울 수 있는 ‘서울런 여름방학 예체능 클래스’를 운영하고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까지의 서울런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겨울방학 시범 운영 당시 44명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해 모집 규모를 60여 명으로 확대했다.

/이현진 기자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 연임

임기 2029년 6월까지 3년 미래전략실 신설 등 조직개편 재정위기 대응·수익사업 발굴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위기 속에서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총장(사진)이 연임과 함께 미래전략실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며 사립대학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

사총협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35회 정기총회에서 황인성 사무총장의 연임을 의결하고 제4대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6월 8일부터 2029년 6월 7일까지 3년이다.

황 사무총장은 1999년부터 한국대학교



육협의회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2020년 사총협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네 차례 연속 연임, 협의회 실무총괄하게 됐다. 사총협은 이번 연임과 함께 조직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기존 ‘사무총장’ 직위를 ‘사무총장’으로 변경하고, 조직을 기존 1팀·1연구소 체제에서 1연구소·2실 체제로 확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래전략실 신설이다. 미래전략실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신규 수익사업 발굴을 전담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2 | 해질 / 19:52

6월 9일 (화) 음력 : 4월 24일

수도권 날씨 16~2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2/26, 동두천 13/27, 가평 12/27, 파주 12/26, 서울 16/28, 양평 14/28, 인천 16/25, 수원 16/27, 용인 16/27, 평택 14/2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시진핑 주석, 평양 도착... 7년 만의 북한 국민 방문 시작
▲中, 핵탄두 620개 보유... 1년 만에 20개 늘어- SIPRI /사진 뉴시스

▲日, 한국에 ‘수산물 수입 재개’ 실무협의 제안... 韓정부는 신중
▲美 의회, ‘해군 함정 해외 건조 금지’ 추진... 한·미 조선협력 변수

▲“앱으로 택시 부르는 평양, 무슨 일?”... ‘러시아 특수’에 살아난 北 경제
▲이스라엘, 이란 보복 공습... ‘테헤란·타브리즈·이스파한서 폭발음’



이른 무더위에
유통가 분주
여름철 수요잡기
나



Life

현대차
월드컵 마케팅
180개국 공략
L4



엔진시대 저물고 전기차로 질주... 중국 자동차 시장 대전환

세계 경제를 제패(制覇)하겠다는 중국의 호언장담이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세계의 공장' 수준이었던 중국은 이제 가성비를 무기로 전기차에서부터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메트로경제신문>은 해외 산업 분석 전문기관인 '시드윈'과 공동으로 약 10회에 걸쳐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를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중국 첨단산업지도

1 전기차 시장

지난 4월 열린 베이징 국제 모터쇼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중심축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터쇼 현장에서는 독일 폭스바겐, 미국 GM, 일본 토요타 등 기존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부스보다 BYD, 리상, 샤오펑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 부스에 관람객이 몰렸다. 3000만~5000만원대 전기차를 앞세운 중국 브랜드가 외국 브랜드를 제치고 시장 주도권을 잡고 있다.

◆중국 신에너지차 1649만대, 신차 시장 절반 육박

2025년 중국의 신에너지차(NEV, PHEV) 판매는 1649만대로 전체 자동차 시장 3440만대의 48%를 차지했다. 연말에는 두 달 연속 신에너지차 비중이 50%를 넘어서며 신차 시장의 절반 이상이 전동화 차량으로 채워졌다. 중국 자동차 시장이 기술린차 중심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내연기관차의 판매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5년 중국 내 기술린차와 디젤차 판매는 전년대보다 4%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2027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연간 15~20%씩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석유 기반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내연기관차 수요 감소와 신에너지차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수출에서도 중국 브랜드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세관총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830만대를 넘어서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중국 자동차 산업은 내수 중심으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경쟁자로 자리 잡았다.

◆정책·배터리·소프트웨어가 만든 전기차 경쟁력

중국이 전기차 강국으로 부상한 배경에는 정책, 배터리,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함께 작용했다.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장을 키웠고 이후 의무 판매제, 노후차 교체 지원 등으로 정책 수단을 바꿔가며 전동화 전환을 밀어붙였다. 2020년 제시한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전기차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린 핵심 배경이다.

충전 인프라 확대도 소비자 전환을 뒷받침했다. 2024년 말 기준 중국 내 충전기는 1281만기를 넘어섰

중국 자동차 시장 구조변화

	2020년	2025년	2026년 전망
신에너지차(NEV) 비중	약 6%	47.9%	55% 전망
중국 독자브랜드 점유율	38%	69.5%	70% 이상
연간 자동차 수출	약 100만대	834만대	약 800만대
내연기관차 판매 추세	증가세	전년대비 -4%	연 15~20% 감소

중국 전기차 주요정책 흐름

시기	정책명	주요내용
2009~2015년	구매보조금	전기차 1대당 최대 6만위안(약 1300만원) 지원
2016~2020년	이중 포인트 제도	완성차업체마다 NEV 생산 의무 할당, 미달 시 과태료
2021~2022년	보조금 단계적 축소	과잉지원 논란 후 점진적 축소, 기술자립 유도
2023~현재	이규환신	낡은 기술린차 폐차하고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지난 4월 순이구 중국국제전람중심에서 열린 베이징 국제 모터쇼.

/베이징 국제 모터쇼 홈페이지

중 자동차, 내연기관차서 전기차로 이동 작년 중국 NEV 1649만대 판매... 48% 차지 2027년부터 내연기관차 20%씩 감소 전망

정부 보조금, 충전인프라 등 전기차 뒷받침 독자브랜드 69.5% 점유... 합작사 구도 재편 산업 성장으로 글로벌 시장영향력 확대

다. 충전 불안을 줄이면서 전기차 구매 장벽을 낮춘 것이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CATL과 BYD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CATL은 2025년 기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9.2%를 차지했고 BYD도 16.4%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중국 전기차의 원가 우위를 키웠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전기차는 유사 성능의 해외 브랜드 차량보다 30~50% 낮은 가격대를 제시할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기존 완성차 업체와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

BYD, 니오, 리상, 샤오펑, 지커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는 차량 판매 이후에도

무선 펌웨어 업데이트 기술(OTA)을 통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차량 소프트웨어를 분기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갱신하면서 소비자 경험을 계속 바꾸는 방식이다. 수년에 한 번 대규모 변경을 거치는 기존 완성차 개발 방식과는 속도 차이가 크다.

◆독자 브랜드 69.5%, 합작사 중심 구도 재편

이 같은 변화는 중국 내 합작사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 중국 자동차 시장은 외국 브랜드가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 업체가 생산과 유통을 맡는 합작사 중심으로 성장했다. 폭스바겐-상하이자동차, GM-상하이자동차, 토요타-광저우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전기차 전환 국면에서는 중국 독자 브랜드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힘을 못 쓰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중국 독자 브랜드 점유율은 69.5%를 기록했다. 2020년 38%였던 점유율이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과거 중국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중국 시장을 장악했던 독일, 일본, 미국 브랜드의 입지는 30%대로 축소됐다. 2025년 혼다의 중국 판매는 전년대보다 24% 줄었고 디아자동차(FAW)-폭스바겐도 4.3% 감소했다. 반면 BYD는 7.7% 성장했고 지리 계열 브랜드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합작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전환 속도다. 독일, 일본, 미국의 대형 완성차 업체들

은 기존 기술린 생산라인과 수십 년간 쌓아온 공급망을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다. 반면 중국 신흥 브랜드들은 출발부터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설계됐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합작사가 모두 밀려나는 것은 아니다. 광저우 토요타는 2025년 75만6000대를 판매하며 전년대보다 2.4% 증가했고 포드 차이나는 중국 공급망 활용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2024년 7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결국 중국 자동차 시장의 변화는 합작사의 일방적 몰락이라기보다 전동화 전환 속도와 현지화 역량에 따라 생존 기업과 도태 기업이 갈리는 재편 과정에 가깝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시작된 변화는 결국 세계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를 바꾸는 문제로 이어진다. 중국 업체들은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 전환 속도, 배터리 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역량을 앞세워 외국 합작사를 밀어냈고 같은 방식을 해외 시장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 일본, 독일 자동차 업계가 마주한 경쟁 압박도 커지고 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은 일시적인 가격 경쟁이 아니라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들고, 판매한 뒤 계속 개선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다. 앞으로의 승부는 전기차 전환 속도와 배터리 공급망,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누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BYD SEAL ▶

메트로 한줄뉴스



▲키움, '젠슨 황 시구' 두산 꺾고 4연패 탈출... '김도영 멀티포' KIA, 삼성 추격
▲축구협회, 광화문서 북중미 월드컵 거리응원 및 팝업 운영 /사진 뉴스시스

▲홍명보호, 잔디 적응도 유리 체코는 경기 전날 예야 입성
▲'한국 첫 상대' 체코도 오픈트레이닝 개최... "손흥민 경계 대상 1호"

▲한국 U-18 남자 농구, 중국에 패배... 아랍 예선 3승1패 마무리
▲라켓 든 탁구 전설 현정화, 강릉세계마스터즈 예선 3연승... "1등 해야죠"